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서울경제

SEOUL ECONOMIC BULLETIN

1

January 2016 vol.130



이달의 이슈

- 사물인터넷과 서울
- 서울, City of Things를 위해



생생리포트

북촌 사물인터넷 시범사업 및
사물인터넷 도시조성사업 추진



인포그래픽스

서울의 노인은
어떤 일을 하고 있나?



경제동향

요약/생산/소비/고용/물가
부동산/금융/수출입



경제통통

FOCUS/ZOOM IN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서울경제

발행인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김수현 (서울연구원장)

연구책임 조달호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연구진 장윤선 (연구원), 최윤진 (연구원)

편집위원 서울연구원

최봉 (연구위원), 김범식 (연구위원), 김묵한 (연구위원)

서울시 경제정책과

김태희 (과장), 김선수 (팀장), 나성조 (주무관)

발행일 매월 말

발행처 서울특별시·서울연구원

주소 (우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서초동 391번지)

전화 (02)2149-1233

팩스 (02)2149-1289

홈페이지 www.si.re.kr

*본 간행물은 서울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달의 이슈

- 06 | **사물인터넷과 서울**
이재용(국토연구원 스마트·녹색도시연구센터장)
- 14 | **서울, City of Things를 위해**
차두원(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창조경제전략센터 연구위원)

생생리포트

- 22 | **북촌 사물인터넷 시범사업 및
사물인터넷 도시조성사업 추진**
김기현(서울특별시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팀)

인포그래픽스

- 32 | **서울의 노인은 어떤 일을 하고 있나?**
이주일(서울연구원 도시정보센터 연구위원)
박현주(서울연구원 도시정보센터 연구위원)
양인선(서울연구원 도시정보센터 연구위원)

경제동향

- 38 | **요약**
- 39 | **생산**
- 41 | **소비**
- 42 | **고용**
- 45 | **물가**
- 46 | **부동산**
- 48 | **금융**
- 53 | **수출입**
장윤선(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위원)
최윤진(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위원)

경제통통

- 60 | **FOCUS / ZOOM IN**
김가영(서울특별시청 경제진흥본부)





이달의 이슈

사물인터넷과 서울

이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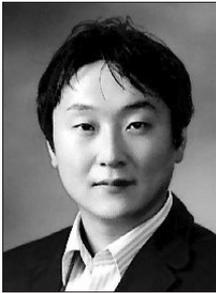
국토연구원 스마트·녹색도시연구센터장
leejy@krihs.re.kr

서울, City of Things를 위해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창조경제전략센터 연구위원
doowoncha@kistep.re.kr

사물인터넷과 서울



이재웅

국토연구원 스마트·녹색도시연구센터장
leejy@krihs.re.kr

1. 사물인터넷 시대의 도래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은 일반적으로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사물을 지능화하고 개별 사물 간 서로 통신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술 환경을 말한다. 이미 사물인터넷은 우리의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보편적 기술이 되어가고 있다.

사물인터넷이 적용된 냉장고, TV, 세탁기 등의 생활가전제품들은 TV 광고 등에서 볼 수 있으며 삼성전자 등의 대기업도 2020년까지 회사의 모든 제품을 사물인터넷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생활가전제품뿐만 아니라 자동차, 웨어러블 제품 등 이미 많은 제품에 사물인터넷 기술이 접목되고 있다. 전자제품들이 사물인터넷으로 연결되면서 이들을 아우르는 스마트 홈 개념도 주목받고 있으며 설계단계에서 사물인터넷 기술을 포함하여 방법, 조명 및 난방 등과 같은 홈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아파트가 등장하였고 이미 높은 관심을 받으며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 역시 다양한 사물인터넷 기술들을 접목하여 스마트한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사물인터넷 기반의 도시 인프라 등을 통하여 산업활성화 및 도시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으며 도시의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은 스마트도시에 대한 전 세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지리학 박사
- 최근 연구: 기존도시의 U-City 고도화 방안 연구(2015),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플랫폼 구축 연구기획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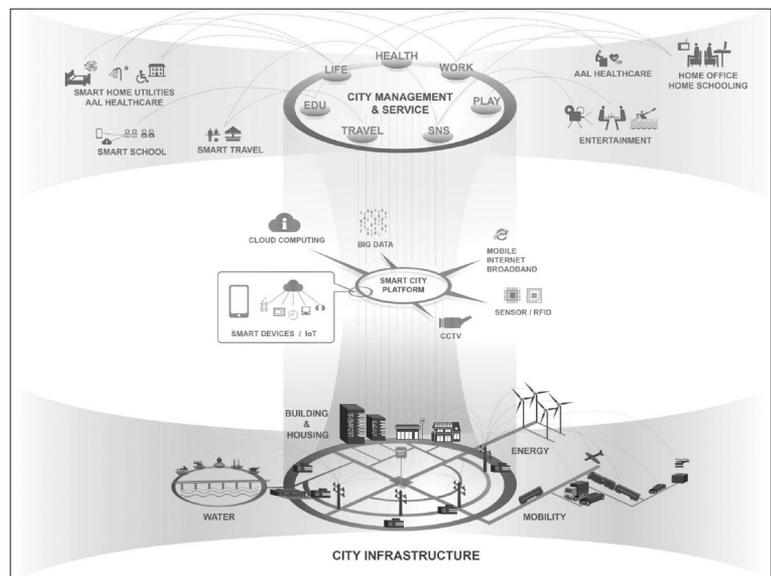
계적 관심을 불러오고 있다.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스마트도시 글로벌 시장은 4,113억 달러 규모에서 1조 1,348억 달러 규모로 매년 22.5%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Marketsandmarkets, 2015). 또한 2008년 20여 개에 불과했던 스마트도시 관련 프로젝트들은 최근 중국의 500개 스마트도시(지혜도시) 건설 사업 및 인도의 100개 스마트도시 건설 사업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존 체임버스 시스코 회장은 'CISCO Live 2013'에서 “아직 99%의 세계는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이제부터 모든 사물이 서로 연결되는 세상이 급격하게 도래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또한, 미국의 정보기술 자문회사인 가트너(Gartner)에 의하면 2009년 사물인터넷 기술을 사용하는 사물의 개수는 약 9억 개였으나 2020년에는 260억 개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불과 1%의 사물만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음에도 이미 많은 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데 차후 나머지 99%의 사물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된다면 가히 또 다른 기술혁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물인터넷과 도시

사물인터넷의 도시 적용은 제4차 도시혁명으로 불리고 있다. 약 1만 년 전 인류 최초의 도구인 석기의 사용은 원시농업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는 인류가 처음으로 정착생활을 시작하는 농업혁명으로 이어졌다. 그 이후 농업기술의 지속적 성장은 식량생산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켰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잉여식량을 자본으로 활용하는 도시혁명으로 진화하게 되었다. 기원전 3000년경부터 시작된 고대 도시문명은 도로망, 하수도 시설 등의 도시 기반시설들을 갖추나가게 되면서 일정 공간 내 많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난 후 18세기 후반 증기기관이라는 새로운 기술의 발명은 공장제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산업혁명을 불러왔다. 수많은 농민이 대거 도시로 유입되어 노동자가 되었고, 이들 노동자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고층 및 고밀도 형태로 공간상에 입체적으로 건물들이 집적하게 되었다. 20세기 후반이 되

면 인터넷의 발명으로 가상체험, 사이버 쇼핑 등과 같은 물리적인 현실 공간을 대체하는 새로운 사이버공간이 등장한다. 이는 인류의 활동기반이 물리적 공간에서 인터넷 공간과 같은 새로운 사이버공간을 창조하는 탈공간적 혁명을 불러온다. 최근 사물인터넷의 발전은 사이버공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기존의 물리적 공간과 사이버공간을 결합하여 제3의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다. 제3의 공간에서는 인간과 사물들이 네트워크로 서로 연결되어 물리적 공간에서 이동하는 중에도 언제든지 사이버공간에 접속하여 다양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물리적 공간과 사이버공간의 모든 정보와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림 1〉 스마트도시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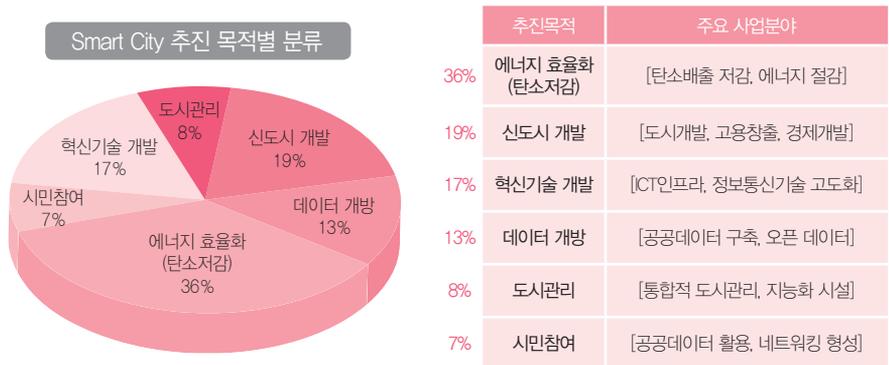
특히,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사물인터넷 기반의 스마트도시에서는 도시의 기반시설이라는 물리적 공간이 사물인터넷 기술을 통해 지능화되고 사이버공간과도 연결되어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거나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스마트도시는 실시간으로 적절하게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도시의 기반시설 및 재원 등의 활용을 극대화함으로써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스마트도시 등장 이전의 도시문제 해결방식은 대규모 자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을 확장하거나 혹은 인력 투입의 확대 등을 통한 방식이었다. 예를 들어 교통체증이 발생할 경우 그 구간의 도로를 확장하거나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는 등의 방안은 전통적 도시문제의 해결방식에 해당한다. 반면 스마트도시는 도로의 각 구간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 교통체증 정보 등을 제공하고, 시민들이 막히는 도로 대신 다

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미 구축되어 있는 도로들의 활용성을 높여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사물인터넷 기반의 스마트도시는 활용 가능한 자원들의 효율성을 고도화하여 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그 장점이 발휘된다고 할 수 있다.

3.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도시의 해외 현황

스마트도시가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세계 도시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주택, 기반시설, 교통, 에너지 등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도시문제의 해결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따라서 사물인터넷 기술 등을 활용하여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둘째, 유럽 등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 이슈인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도시 내 에너지 사용을 감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물인터넷 기술 기반의 스마트도시가 부각되고 있다.

최근 국토연구원(2015)은 세계 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32개국 53개 도시를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대상 국가는 유럽(네덜란드, 스페인, 몰타, 오스트리아, 프랑스, 영국, 스웨덴, 독일, 핀란드,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벨기에, 덴마크), 아시아(일본, 중국,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아프리카(남아프리카 공화국, 케냐, 가나), 북미(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남미(브라질, 칠레, 콜롬비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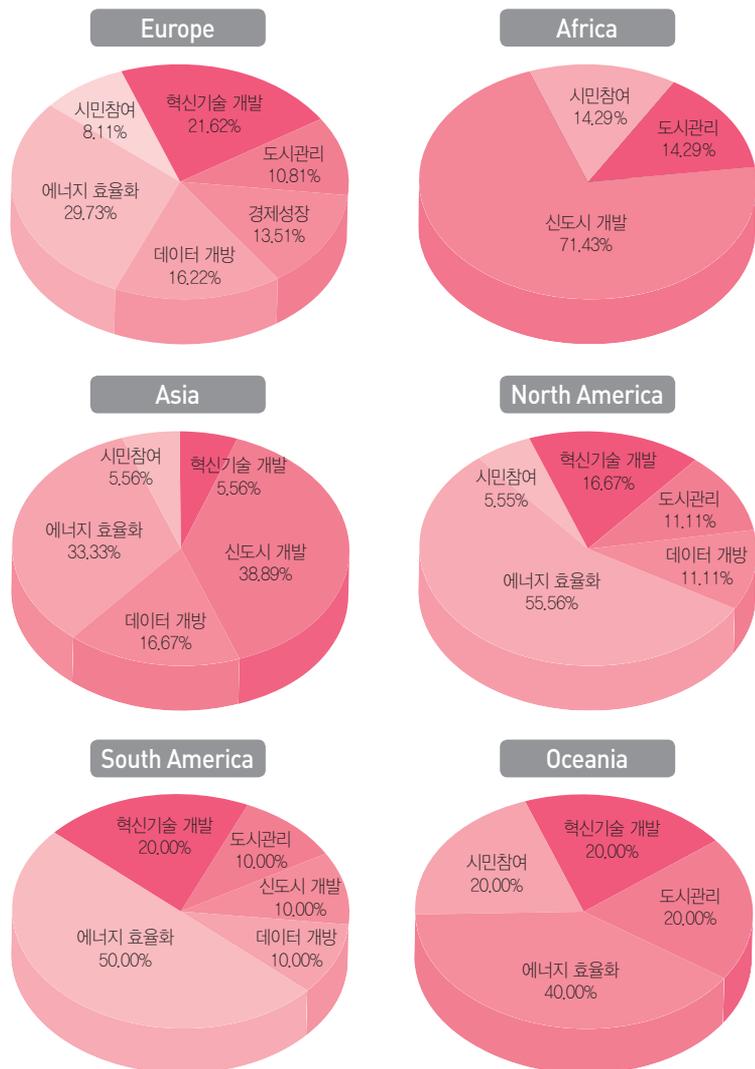


〈그림 2〉 스마트시티 추진 목적별 분류

조사 결과 스마트시티를 추진하는 목적은 크게 (1) 탄소 배출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에너지 효율화 부문, (2) 도시개발, 고용창출, 경제개발

을 위한 신도시 개발 부문, (3) ICT 인프라 및 정보통신기술 고도화를 위한 혁신기술 개발, (4) 공공데이터 구축 및 오픈 데이터 정책을 포함하는 데이터 개방 부문, (5) 통합적 도시관리를 위한 도시관리 부문, (6) 시민들의 참여 부문 등 6개 부문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은 에너지 효율화 측면이며 그 다음은 신도시 개발, 혁신기술 개발 등의 순이다.

이러한 분류를 다시 대륙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간 추진목적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럽 및 북미의 국가들은 에너지 효율화 관련 부문에 집중하여 스마트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은 신도시 개발을 목표로 스마트시티를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스마트시티 대륙별 추진 목적별 분류

개별 목표에 따른 스마트도시 구축 방안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유럽 등의 국가는 에너지 효율화 측면에서 가로등을 LED로 바꾸고 동작센서를 활용하여 사람들이 접근할 때 불이 들어오게 하는 Smart Lighting, 쓰레기양을 측정하는 센서를 활용하여 쓰레기 수거시점을 확인하는 스마트 쓰레기통 등과 같이 개별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 U-City 사업을 포함하여 아시아지역의 신도시 개발사업은 설계단계에서 고속정보통신망 및 도로 등의 도시기반시설에 센서 및 CCTV 등을 설치하는 등 대규모 투자개발 사업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도입하여 도시의 관리 및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차후 서비스들 간 연계 및 확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사물인터넷에 기반을 둔 스마트도시의 목적 및 구축 방안들은 개별 국가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사물인터넷도시 서울, 도전과 과제

서울시는 이미 다양한 측면에서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도시를 추진하였다. 첫째, 서울시는 북촌지역을 사물인터넷 시범특구로 조성하고 불법주차 감지, 스마트 쓰레기통, 관광과 관련한 증강현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혹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등의 유럽에서처럼 기성시가지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별 도시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접근하는 사물인터넷 도시 형태이다. 둘째, 은평뉴타운, 마곡지구 등은 초기 개발 시 스마트도시 콘셉트를 가지고 도시 기반시설물들에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접목시키는 대규모 구축사업과 같은 사물인터넷 기반의 신도시형 스마트도시 형태의 사업도 추진하였다. 셋째, 상암 DMC(Digital Media City)의 경우처럼 특정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사업에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 주는 형태의 사업도 추진하였다.

현재 전 세계에서 추진되는 사물인터넷 기반의 스마트도시 중 서울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추진한 지역은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이는 스마트도시들 중 매우 의미있는 사례로 생각된다. 하지만 서울이 지속적으로 사물인터넷 기반의 성공적인 도시로 성장하고 해외도시들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사물인터넷도시의 분명한 비전 및 목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서울 내 사물인터넷도시 관련 사업들은 사례가 다양한 반면, 개별적으로 구축 및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통하여 성취하고자 하는 큰 비전을 찾기 어렵다.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서울시 전체가

추구하고자 하는 분명한 비전 및 목표를 가지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사물인터넷 기술을 접목하는 도시는 전 세계적 흐름이기 때문에 단편적 사업으로 추진되기보다 더 큰 그림 안에서 각 사업들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서울시가 다양한 사업모델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서울시에 대한 홍보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특히, 해외에 서울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사물인터넷 기반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사업의 정량적 혹은 정성적 성과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서울시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사물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스마트도시 사례로 여겨지고 있다. 암스테르담은 자국사례를 콘퍼런스 혹은 책자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세계에 홍보하고, 암스테르담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모아놓은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 역시 도시수출과 관련한 사업들을 추진 중이다. 성공적 도시수출을 위해서는 우선 서울시가 추진하였던 다양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그 효과에 대하여 명확하게 데이터들을 확립한 후 이를 적극적으로 해외에 홍보하여야 한다.

셋째, 서울시는 기성시가지와 신도시, 그리고 산업단지 등 다양한 도시공간 속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접목하였다. 하지만 각각의 사업은 그 주체가 다르고 독립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사물인터넷 기술의 가장 중요한 점이 연결성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특히 기성시가지와 신도시를 어떤 방식으로 연계 및 통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서울은 기성시가지와 신도시 지역에 사물인터넷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두 공간을 연계하고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 사례로 서울이 인식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서울은 이미 다른 나라 도시에 비하여 사물인터넷 기술의 적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의 다양한 사례가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홍보된다면 자국의 사물인터넷 기반 도시를 구축하기 위하여 전 세계 많은 도시가 서울을 롤모델로 생각할 것이라고 믿는다.

참고문헌

1. 이재용·사공호상, 2015, “스마트도시 해외동향 및 시사점”, 국토정책 Brief
2. 하원규·최해욱, 2013, “디지털 행성과 창조도시 전략”, 전자신문사
3. Gartner, 2014, “Gartner Says a Thirty-Fold Increase in Internet-Connected Physical Devices by 2020 Will Significantly Alter How the Supply Chain Operates”
[<http://www.gartner.com/newsroom/id/2688717>]
4. Marketsandmarkets, 2015, “Smart Cities Market - Worldwide Market Forecasts and Analysis (2014-2019)”

이달의 이슈 102

서울, City of Things를 위해



차 두 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창조경제전략센터 연구위원
doowoncha@kistep.re.kr

1. 사물인터넷이란?

최근 사회적으로 가장 뜨거운 새로운 혁신의 키워드는 단연 사물인터넷이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시간, 장소, 접속 대상 등 일본 노무라 연구소가 내린 사물인터넷 정의를 채용해 “언제 어디서나 모든 것과 연결이 가능한 네트워크(Any TIME Connection, Any PLACE Connection, Any THING Connection)”라고 정의했다.

사실 사물인터넷이 최근에 등장한 새로운 개념과 기술은 아니다. 사물인터넷은 유선에서 무선으로 접속이 가능한 인터넷의 발전과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유비쿼터스 네트워크(Ubiquitous Network), 스마트폰과 스마트패드 등 스마트 디바이스 활용 중심의 무선인터넷 시대를 거쳐 주변의 모든 사물을 인터넷과 연결해 원격 조정과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인터넷의 궁극적인 모습이다.

2015년 6월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DC는 전 세계 사물인터넷 시장 규모가 2014년 6,558억 달러(약 731조 원)에서 2020년 1조 7,000억 달러(약 1,870조 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이라 전망을 발표하는 등 많은 국가와 기업, 도시가 이 분야를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로 주시하고 있다.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아주대학교 산업공학 박사
- 대표저서: '초연결시대, 공유경제와 사물인터넷의 미래'



〈그림 1〉 인터넷의 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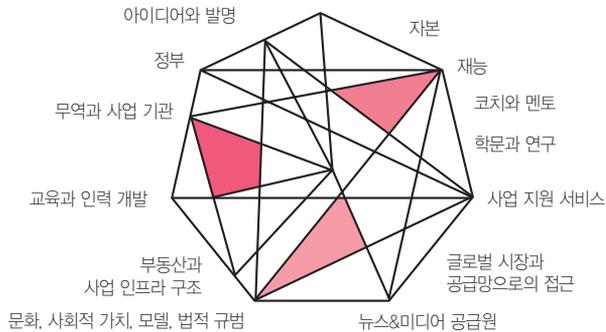
사물인터넷은 인간이 아니라 가전제품, 자동차, 건물, 도로와 같은 사물이 인터넷을 통해 주고받는 정보를 생산하거나 활용하는 주체가 된다. 인간의 참여나 간섭을 최소화시키고 정보의 생산, 교환, 활용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한다는 의미이다. 최근에는 기존 와이파이(Wi-Fi)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본격적인 사물인터넷 활용의 확장을 위한 비콘(Beacon)과 NFC 등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는 사물인터넷이 컴퓨터, 냉장고, TV와 같은 가전제품은 물론, 이미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포함한 소형 모바일과 웨어러블 디바이스, 그리고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눈으로 보기 힘든 작은 사물”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제 막 주변에 사물인터넷 제품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제품들이 출시되기 시작하면서 일반인들에게도 사물인터넷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듯하다. 스마트 플러그, 스마트 도어록, 가전제품을 컨트롤할 수 있는 스마트 허브, 방법기능을 갖춘 IP 카메라, 사물인터넷 보일러 등이 시판되기 시작하는 등 다양한 스마트 홈 제품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2. 지자체 정책의 중요성

전 세계적으로 경제의 글로벌화,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 등에 따라 국가 간 경쟁보다 도시 간 경쟁이 강조되어 베이징, 상하이, 실리콘밸리, 런던 등과 같이 지역경쟁력이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시대에 들어섰다. 이에 따라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은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한 지역정책 기초와 방향을 지역분권화와 광역화로 전환하고, 중앙정부의 톱다운(top-down)형 정책 집행보다 지역 특수여건과 역량을 반영한 지역주도 맞춤형

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관점 통합조정 강화로 부문별 접근방식(sectoral approach)에서 지역에 근거한 접근방식(place-based approach)으로 전환하는 등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효율적 정책 통합과 조정이 강조되고 있다. 당연히 이 제는 지역발전에 물리적 하부구조보다 기술, 혁신, 기업활동 환경 등이 중시되며, 지역 혁신주체 역할이 강조되는 등 지역혁신이 지역발전 정책의 핵심요소로 부상되는 시기에 진입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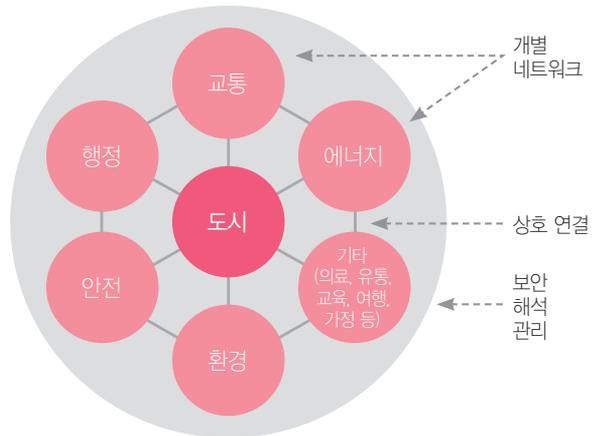
〈그림 2〉 실리콘밸리 생태계 네트워크

자료 권중헌·차두원, 2013 / Victor Hwang and Greg Horowitz, 2012

최근 유행처럼 다시 각광받는 곳은 바로 실리콘밸리다. 세계의 많은 도시가 실리콘밸리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실리콘밸리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T2 벤처캐피털 CEO인 빅터 황(Victor Hwang)은 실리콘밸리를 혁신 클러스터 이론과 다양한 경제이론으로도 설명하기 힘든 ‘혁신의 미스터리’라고 말한다. 혁신이 성공하기 위한 요소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혁신적 기업, 제품, 서비스가 계속 살아있는 환경에서 아이디어, 인재, 자본이라는 양분이 서로 순환하고 결합하며 변화하면서 창의적 해법을 탄생시키는 열대우림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열대우림의 생태계는 유기체 간 상호작용을 통해 적절히 섞여 변창하고 만들어진다. 빅터 황은 미국과 세계의 많은 도시가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 주도의 지역 클러스터가 반드시 혁신을 창출하지 않으며 오히려 혁신을 제한할 수 있다고 말한다. 권위적이지 않고 실패에 관용적이며 아이디어를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독창적인 문화를 실리콘밸리의 성공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또 다른 실리콘밸리를 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실리콘밸리는 클러스터의 다음 단계라는 것이다. 그만큼 도시의 정책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3. 서울과 City of Things

서울시는 서울 전역의 공공시설에 무선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스마트 서울 2015’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2020년까지 서울시 전역에 사물인터넷을 적용하는 등 정책기조를 정보화에서 디지털화로 이동하고자 하는 ‘서울 디지털 계획 2020’도 발표했다. 사물, 사람, 공간 등을 모두 인터넷으로 연결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문제 해결, 신 성장 동력의 창출을 목표로 한다. 사물인터넷은 교통, 에너지, 안전, 행정, 환경 등을 개별 네트워크화하고 이들을 다시 하나의 대규모 네트워크로 상호연결함으로써 스마트시티(Smart City)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스마트시티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City of Things’란 단어가 더 타당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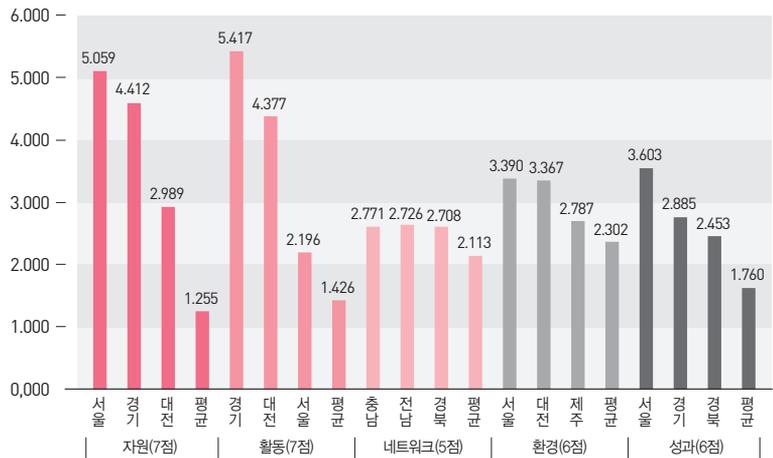
〈그림 3〉 Internet of City 개념도

물론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 기술개발과 일자리 창출도 매우 중요하다. 사물인터넷 스타트업과 벤처를 위한 사물인터넷 인큐베이팅 센터(가칭 디지털 서울 랩) 조성도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사물인터넷과 관련한 시민들의 혁신적인 도시문제 해결형 아이디어 발굴부터 자유로운 실험과 제작(오픈랩, 창의공작소, 테스트베드 등), 사업화까지 다각도로 지원한다고 한다. 내년에 문을 여는 ‘빅데이터 캠퍼스’와 연계해 운영의 시너지를 낸다는 계획이다. 사물인터넷을 통해 생성된 방대한 데이터들은 빅데이터가 되고, 이것을 다시 분석해 정책에 재활용하는 내용이다.

4. 서울의 역량은?

서울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수행한 ‘2015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에서 세종을 제외한 16개 지자체 가운데 경기도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특히 과학기술활동에 필요한 기초 자원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자원 부문(인적자원, 조직, 지식자원)’, 과학기술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구축되어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환경 부문(지원 제도, 인프라, 교육과 문화)', 투입 자원을 활용하여 주어진 환경하에서 활동 주체 간 네트워크를 통해 과학기술 활동을 수행한 결과 구체적인 성과가 얼마나 산출되었는지 측정하기 위한 '성과 부문(경제적 성과, 지식창출)'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이 밖에 한 지역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활용하는 연구개발 활동을 얼마나 지향하고, 활발하게 수행하는지를 파악하는 '활동 부문(연구개발투자, 창업/사업화 활동)'은 경기와 대전에 이어 3위, 그러나 지역 내에 연구개발 네트워크가 얼마나 잘 구축되어 있는가를 측정하는 '네트워크 부문(산·학·연 협력, 기업 간/정부 간 협력, 국제협력)'은 10위권으로 매우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그림 4〉 지역혁신역량평가 5개 부문별 상위 지역 결과(2015년)

주 ()는 각 부문의 배점을 의미하며 평가 부문별 지표수와 동일

5. 서울, City of Things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살펴보았듯 사물인터넷과 도시경제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으며, 서울시 정책은 스마트시티라기보다 City of Things로 발전해야 한다. 서울시는 우리나라의 수도답게 실리콘밸리를 능가하는 도시로 성장해야 국가의 발전도 함께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혁신역량평가에서 살펴보았듯 서울시는 자원, 환경, 성과부문의 지표는 뛰어난 반면 네트워크 지표에서는 매우 뒤처짐을 알 수 있다. 사물인터넷의 궁극적 철학인 기존 인터넷의 '연결'을 넘는 '초연결'과는 다소 대치되는 상황이다.

스마트 디바이스와 소셜네트워크, 사물인터넷의 등장과 활용으로 사람과 사람의 초연결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의 초연결로 그 의미가 확대되고 있다. 많은 사람이 주변의 모든 것을 본래의 존재를 넘어 연결의

대상으로 바라본다. 이러한 생활방식은 당연히 시민들의 삶의 모습과 관련 산업과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치며 생활의 형태를 ‘커넥티드 라이프(Connected Life)’로 변화시켜 초연결사회를 향한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한다. 모든 장소가 ‘커넥티드 라이프’의 허브로서 City of Things의 모든 네트워크에 접근이 가능하다. 직장도 모바일 오피스, 스마트 워크의 구현을 통해 생산성 및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의 영역으로 거듭난다. 서울의 사물인터넷은 이러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

서울이 사물인터넷을 넘어 ‘커넥티드 라이프’가 가능한 ‘City of Things’로의 전환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기술보다 시민들, 그리고 인터넷을 넘어 과학기술과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 활성화가 아닌가 싶다.

참고문헌

1. 권중현·차두원 공역, “정글의 법칙-혁신의 열대우림, 실리콘밸리의 7가지 성공 비밀”, 북 콘서트 (원저: Victor Hwang and Greg Horowitz, 2012. 2, “The Rainforest: The Secrets to Building the Next Silicon Valley”, Regenwald)
2. 차두원, 진영현, 2015. 1, “초연결시대, 공유경제와 사물인터넷의 미래-새로운 연결의 시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한스미디어
3. 차두원, 2011. 3, 지역R&D 효율화를 위한 정책추진 방향, KISTEP Issue Paper 2011-13
4. KISTEP, 2015. 12. 8, “2015년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결과”, KISTEP 지역과학기술 정책 포럼 발표자료





생생리포트



북촌 사물인터넷 시범사업 및 사물인터넷 도시조성사업 추진

- I. 사물인터넷과 도시문제
- II. 북촌 사물인터넷 시범사업
- III. 사물인터넷 도시조성사업 추진

서울특별시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팀

김기현 khkim@seoul.go.kr

북촌 사물인터넷 시범사업 및 사물인터넷 도시조성사업 추진

I. 사물인터넷과 도시문제

사물(Things)이 통신의 주체가 되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시대가 본격화 되고 있다. 사물인터넷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생활 속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정보를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해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 기술 및 서비스를 말한다. 최근 사물인터넷은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으며, 2022년엔 규모가 1,200조 원에 이르는 세계 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다(산업연구원, 2014)으로 EU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사물인터넷 분야의 우위 선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사물인터넷 기본계획'(2014년)을 수립하고 사물인터넷 산업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래 성장동력 19대 분야 중 기반사업으로 사물인터넷을 포함시켜 R&D 사업화, 인프라, 법제도 부문 발전계획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사물인터넷 기술이 최근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다. 사람의 직접적인 관여 없이 사물 간의 통신만으로 자동화·지능화된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과 함께 재개발 등 대규모 물리적인 방법이 아닌 사물인터넷 기술 접목에 의한 기존 시설의 보완이나 재사용만으로도 도시화에 따른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향후 사물인터넷의 공공부문 가치창조 전망규모를 살펴보면 2022년 예측치 4.6조 달러 중 도시운영 부문이 1.9조 달러로 41.7%(시스코, 2014)에 달하고 있다.

서울시는 '사물인터넷 추진 기본계획'(2014년)을 시작으로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정보화전략계획'(2015년)을 수립하고, '세계에서 사물인터넷을 가장 잘 활용하는 글로벌 사물인터넷 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하는 2020년

까지의 연차별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사물인터넷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다양하고 복잡한 서울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사물인터넷 서비스의 시(市) 전역 확산 방향을 마련하기 위하여 '북촌'을 사물인터넷 서비스 실증지역으로 선정하고 '북촌 사물인터넷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II. 북촌 사물인터넷 시범사업

북촌은 경복궁과 창덕궁, 종묘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전통한옥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주거지역이다. 아름다운 한옥과 갤러리, 카페 등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다양한 아이টে으로 서울의 유명한 관광명소 중 한곳이 되었다. 또한 많은 사적과 문화재, 민속자료가 있어 도심 속의 거리 박물관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북촌 안내소 방문자 통계에 따르면 현재 북촌 안내소를 찾고 있는 관광객은 연간 100만 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많은 관광객이 북촌을 찾을수록 북촌은 소음, 쓰레기, 사생활침해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안게 되었으며, 이러한 도시문제는 북촌주민은 물론 북촌을 찾는 관광객들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다.



〈그림 1〉 북촌 풍경



〈그림 2〉 북촌지역 도시문제의 예

북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도시문제의 이면에는 북촌지역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주거밀집 지역이라는 특성이 자리 잡고 있다. 북촌의 한옥은 일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그러나 주거지역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일부 관광객들에 의한 소음, 주거지 촬영 등 사생활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북촌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반면 북촌이 주거지역이라는 점이나 골목길 정보, 공방 및 박물관 체험정보 등 관광장소 안내나 이용편의시설에 대한 정보 등이 관광객에게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점도 문제 발생에 한몫을 하고 있다. 또한, 북촌은 숙소, 음식, 패션, 기념품, 약국 등 소상공인에 의한 상권이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연간 방문 관광객의 규모를 고려할 경우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상권 활성화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이처럼 주거, 관광, 그리고 상권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다양하게 얽혀 복잡하게 발생하고 있는 북촌의 도시문제 특성이야말로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도시문제 해결 실증의 적격지로 판단하여 서울의 사물인터넷 시범지역 제1호로 북촌을 선정하게 되었다.

서울시는 먼저 북촌의 유동인구 측정을 위해 북촌의 주요 진·출입 지역에 유동인원측정(People Count) CCTV를 설치하였다. 기존의 북촌 관광객은 관광안내소 방문 관광객 기준으로 산출하였기에 더 근접한 방문객 통계 산출을 통해 북촌의 다양한 관련 정책수립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물론 계속된 통계치는 서울시열린데이터광장을 통해 실시간으로 민간에 공개된다.

또한, 북촌 전역에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공공무선인터넷(WiFi)을 구축하였다. 구축된 무선인터넷은 관광객에게 무료인터넷 편의제공은 물론 북촌 사물인터넷 서비스 구축을 위한 기본 인프라로 사용된다. 아울러, 관광객이 무료인터넷 사용을 위하여 무선인터넷 장비에 접속할 때 북촌은 일반 거주지역이라는 안내와 함께 소음이나 사진촬영 시 사생활침해 등에 유의해달라는 당부 메시지를 보여줌으로써 관광객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북촌의 사물인터넷 시범사업의 서비스 구축은 공공주도의 서비스 직접 개발방식이 아닌 민간 자율참여의 민관협력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무선인터넷이나 콘텐츠 등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여 민간에 전면 개방하고, 스타트업 등 민간 기업에서는 이를 융합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기반으로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방식을 취한다. 민간주도의 협력개발 방식은 기존 공공주도의 서비스 직접 개발방식에 비해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의 적용이 용이하며, 사용자의 요구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어 서비스의 진화가 빠른 장점을 가지고 있다. 물론 서울시는 민간기업의 서비스 개발 및 적용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의·조율 등 행정적·제도적인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촌 사물인터넷 시범사업을 통해 진행 중인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살펴보면, 먼저 북촌의 도시문제 중 가장 큰 문제인 주·정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문제의 해결과 제한된 주차공간 활용의 극대화라는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하였다. 불법 주·정차문제의 해결방법은 주·정차 금지구역의 도로 바닥에 센서를 설치하여 일정시간 이상 지속되는 불법 주·정차를 감지할 때 자동으로 서울시 스마트불편신고에 신고하는 것이다.



〈그림 3〉 센서기반의 불법주·정차 신고



〈그림 4〉 주차장 공유

한편, 제한된 주차공간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비어 있는 주차공간에 센서와 모바일앱 기반의 공유기술을 적용하여 북촌을 찾은 관광객들이 공유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족한 주차면으로 인한 주차문제 해결을 돕고 있다.

북촌의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설치된 스마트 쓰레기통은 쓰레기통에 설치된 센서에 의하여 쓰레기의 양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자동으로 감지하고, 쓰레기가 일정 수준까지 채워지면 다산콜센터로 신고되어 수거가 이뤄진다. 기존에 사람이 쓰레기통을 확인하고 수거를 요청하던 방식에서 센서에 의한 자동신고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더는 쓰레기가 쌓여 불편을 겪는 일이 없어지게 된 것이다.



〈그림 5〉 스마트 쓰레기통

한옥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목재가 많이 사용되어 화재와 습기에 매우 취약하다. 특히 북촌의 한옥마을처럼 가옥 밀집도가 높은 경우에는 화재 발생 시에 인근 건물로 옮겨 붙을 확률이 높아 큰 재난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있다. IoT 기술을 이용한 화재방지 서비스의 실증을 위해 북촌문화센터 한옥의 지점에 온·습도센서, 연기센서, CCTV 등을 설치하였으며, 각 센서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통해 화재로 보이는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스마트폰을 통해 알리게 된다. 이번 북촌에 적용된 화재 및 재난감지 서비스에는 동작감시 기능도 함께 적용하여 방법의 기능도 가능하다.

한옥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목재가 많이 사용되어 화재와 습기에 매우 취약하다. 특히 북촌의 한옥마을처럼 가옥 밀집도가 높은 경우에는 화재 발생 시에 인근 건물로 옮겨 붙을 확률이 높아 큰 재난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있다. IoT 기술을 이용한 화재방지 서비스의 실증을 위해 북촌문화센터 한옥의 지점에 온·습도센서, 연기센서, CCTV 등을 설치하였으며, 각 센서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통해 화재로 보이는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스마트폰을 통해 알리게 된다. 이번 북촌에 적용된 화재 및 재난감지 서비스에는 동작감시 기능도 함께 적용하여 방법의 기능도 가능하다.

된 SIM을 통해 전화와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외국인 국적, 나이, 성별, 취향, 관심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개인화 추천정보를 제공하며, 쿠폰정보는 물론 북촌 내 진행되고 있는 캠페인도 안내할 수 있다. 이밖에도 북촌에서는 현재까지 30여 개 이상의 민간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각 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가 반영된 IoT서비스를 선보여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사물인터넷 관련 서비스의 실증 외에도 북촌에는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주민, 관광객, 개발자가 경험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체험 및 협업공간인 리빙랩(Living Lab)도 조성되었다. 리빙랩은 ‘일상생활 실험실’이라는 뜻으로 서비스의 사용자가 연구 혁신활동의 주체로 활동하는 ‘사용자 참여형 혁신공간’을 일컫는다. 북촌의 사물인터넷 리빙랩은 총 7개소가 설치되었다. 북촌문화센터, 서울 한옥지원센터에는 스마트 방재 등 안전분야 위주의 리빙랩이 조성되었으며, 공방제품과 IoT센서의 접목, 주민 헬스케어 등 주민안전·생활편의 리빙랩은 가회동 및 삼청동 주민센터에 설치되었고, 서울재동 초등학교는 어린이안전 및 첨단교육 분야 리빙랩으로 꾸며졌다. 북촌의 관광안내소 2개소(정동, 재동)는 관광객을 위한 IoT접목 관광서비스 안내자료 홍보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광분야 리빙랩이 만들어졌다.

Ⅲ. 사물인터넷 도시조성사업 추진

서울시는 북촌 사물인터넷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시 전역으로의 연차별 확대 추진을 통해 서울을 사물인터넷 도시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전체적인 추진 전략은 서울시에서 인프라를 구축하여 민간에 전면 개방하고 민간에서는 융합을 통해 도시문제 해결형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민관협력 방식으로 진행된다. 민간에서 개발·제공된 안전, 환경, 교통, 관광, 주거 등 각 분야의 도시문제 해결형 서비스는 현장의 실증 절차를 거쳐 시민의 요구에 최적화된 서비스로 진화시키면서 시 전역으로의 확산을 진행할 예정이다.

확산 첫 단계인 2016년에는 서울의 제1호 사물인터넷 시범지역인 북촌의 사물인터넷 인프라 및 콘텐츠의 고도화 추진과 함께 주거밀집 지역 및 관광(상권)발달 지역 등으로 시범지역을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주거밀집 지역은 주민안전, 환경, 생활편의 등 주거와 밀접한 사물인터넷 특화서비스 모델을 발굴해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며, 센싱정보와 결합된 지역별 관광(상권) 콘텐츠 정보를 제작·개방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스마트 관광안내 서비스 제작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지속적

으로 개발되고 서비스될 수 있도록 자생적 사물인터넷 생태계 조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2016년에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 벤처기업들이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 인큐베이션 센터를 구축·운영할 예정이며, 사물인터넷 인큐베이션 센터는 사물인터넷과 관련한 시민들의 혁신적인 도시문제 해결형 아이디어 발굴부터 자유로운 실험·제작, 사업화까지 다각도로 지원하게 될 것이다.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도시문제 해결은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는 성공사례를 찾기가 힘들다. 서울시는 상생의 민관협력 방식을 통해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그림 9〉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사업 추진





인포그래픽스

서울의 노인은
어떤 일을 하고 있나?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센터

이주일 센터장 leejay@si.re.kr

박현주 연구원 hjpark@si.re.kr

양인선 연구원 inseon@si.re.kr

인포그래픽스

서울의 노인은 어떤 일을 하고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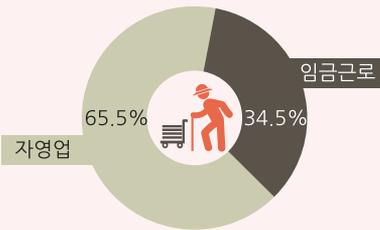
서울의 노인은 어떤 일을 하고 있나?

서울시 고령자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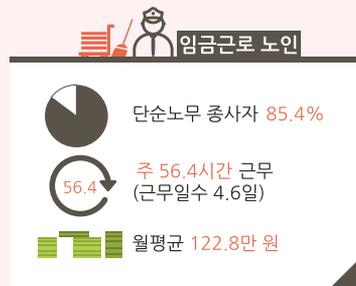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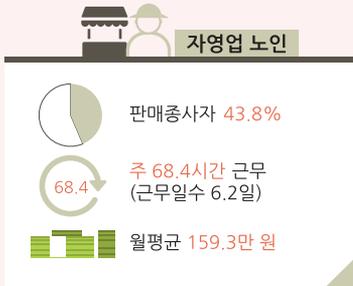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일하는 노인의 근로형태



서울시 일하는 노인의 근로특성



서울시 일하는 노인의 주된 근로 이유



자료: 서울연구원(2015), 「서울시 일하는 노인 근로특성과 정책과제」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센터

이주일 센터장 leejay@si.re.kr / 박현주 연구원 hjpark@si.re.kr / 양인선 연구원 inseon@si.re.kr

서울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약 3명(27.0%)은 일하는 중,
월평균 임금은 147만 원

자영업 노인의 43.8%는 판매종사자, 임금근로 노인의 85.4%는
단순노무 종사자 일하는 이유는 '생계비 마련'이 69.5%로 대다수를 차지

서울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약 3명(27.0%)은 일하는 중, 월평균 임금은 147만 원

- 서울거주 65세 이상 노인은 2015년(3/4분기 기준) 126만 명이고,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서울시 65세 이상 노인 고용률은 27.0%
- 2015년 서울연구원 조사 결과, 서울시 일하는 노인(자영업자+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46만 7천 원으로 나타나

〈표 1〉 서울시 65세 이상 노인 고용률

[단위: %]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65세 이상 고용률	22.5	23.6	23.5	24.7	24.8	27.0

자료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영업 노인의 43.8%는 판매종사자, 임금근로 노인의 85.4%는 단순노무 종사자

- 2015년 서울시 일하는 노인 중 자영업 노인은 65.5%로 임금근로 노인(34.5%)의 약 2배
- 자영업 노인의 경우 판매종사자(매장 판매직 등)가 43.8%로 가장 많았으며, 임금근로 노인의 경우 단순노무 종사자(경비, 미화원, 택배원, 활동보조인 등)가 85.4%로 대다수
- 자영업 노인(주 68.4시간 근무, 월수입 159.3만 원)이 임금근로 노인(주 56.4시간 근무, 월수입 122.8만 원)보다 주당 12시간 더 일하고 36만 5천 원 더 벌어

〈표 2〉 서울시 일하는 노인의 근로특성

	자영업 노인	임금근로 노인
일하는 노인 중 비중	65.5%	34.5%
주요 업종	도매 및 소매업(53.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14.7%), 숙박 및 음식점업(9.5%), 부동산 및 임대업(7.2%) 등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65.5%), 운수업(6.5%), 건설업(4.8%), 숙박 및 음식점업(4.5%) 등
주요 직업	판매종사자 43.8% (매장 판매직, 방문·노점 및 통신 판매 관련직 등)	단순노무 종사자 85.4% (경비, 미화원, 택배원, 활동보조인, 기사도우미, 운전기사 등)
주당 근로시간	68.4시간 (근무일수 6.2일)	56.4시간 (근무일수 4.6일)
월평균 임금	159.3만 원	122.8만 원
	(일하는 노인 평균: 146만 7천 원)	

주 서울 거주 65세 이상 근로자 975명 대상 일대일 면접조사(2015.4.20.~2015.5.22.)

자료 서울연구원(2015), 「서울시 일하는 노인 근로특성과 정책과제」

일하는 이유는 '생계비 마련'이 69.5%로 대다수를 차지

- 일하는 이유로는 '생계비 마련'이 69.5%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노후자금 준비'(8.2%),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기 위해' 5.7%, '용돈이 필요해서'(5.3%) 순

〈표 3〉 서울시 일하는 노인의 주된 근로 이유

일하는 이유	비율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69.5
노후자금 준비를 위해	8.2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기 위해	5.7
용돈이 필요해서	5.3
건강유지를 위해서	2.9
가족들이나 자녀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2.8
나의 능력과 지식을 활용하려고	2.6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2.3
사회참여의 수단으로	0.7
합계	100.0

주 서울 거주 65세 이상 근로자 975명 대상 일대일 면접조사(2015.4.20.~2015.5.22.)

자료 서울연구원(2015), 「서울시 일하는 노인 근로특성과 정책과제」





경제동향



요약

생산 제조업지수/재고지수

소비 대형소매점 판매액

고용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률·고용률

물가 소비자물가/신선식품

부동산 주택매매가격/주택전세가격

금융 가계대출/개인파산/신용보증

수출입 수출입액/품목별 수출입/국가별 수출입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장윤선 연구원 changys@si.re.kr

최윤진 연구원 erdene@si.re.kr

경제동향 | 요약

요약 | 11월 서울의 경제동향



생산

- 서울의 11월 제조업생산지수는 107.5로 전년 동월 대비 3.5% 증가
- 11월 제조업 출하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7.9% 증가, 재고지수는 16.7% 감소하여 회복/상승 국면을 시사



소비

- 서울의 11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조 3,401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3% 증가하였으며, 전국(6조 9,133억 원)의 33.8%
- 11월 백화점 판매액은 전년 동월 대비 2.7%, 대형마트 판매액은 전년 동월 대비 6.2% 증가하여 전반적 소비 증가



고용

- 서울의 11월 취업자는 516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 6천 명(-0.7%) 감소
- 서울의 11월 고용률은 60.3%로 전년 동월 대비 0.6%p 하락, 실업률은 3.6%로 전년 동월 대비 0.9%p 하락



물가

- 2015년 11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11.4(2010년=100.0)로 전년 동월 대비 1.7% 소폭 상승하여 저물가 기조 지속
- 신선식품물가지수(5.4%), 서비스물가지수(2.9%), 생활물가지수(1.0%), 상품물가지수(0.5%)는 모두 상승



부동산

- 서울의 11월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재건축 이주 수요와 매물부족에 따른 매도호가 상승, 거주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아파트 매매수요 증가로 전월 대비 0.50% 상승한 104.2 기록
- 서울의 11월 주택전세가격지수는 전세물량 부족과 저금리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0.66% 상승한 118.7 기록



금융

- 서울의 11월 전체 대출금 잔액은 634조 5,862억 원으로 전월 대비 0.9% 증가
- 서울의 11월 은행 가계대출은 203조 491억 원으로 전월 대비 1.0% 증가
- 서울의 11월 보증금액은 1,027억 원, 보증지원건수는 4,073건으로 전월 대비 각각 34.6%, 31.5% 감소
-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제조업 보증금액이 전월 대비 각각 34.2%, 33.5%, 37.8%, 37.9%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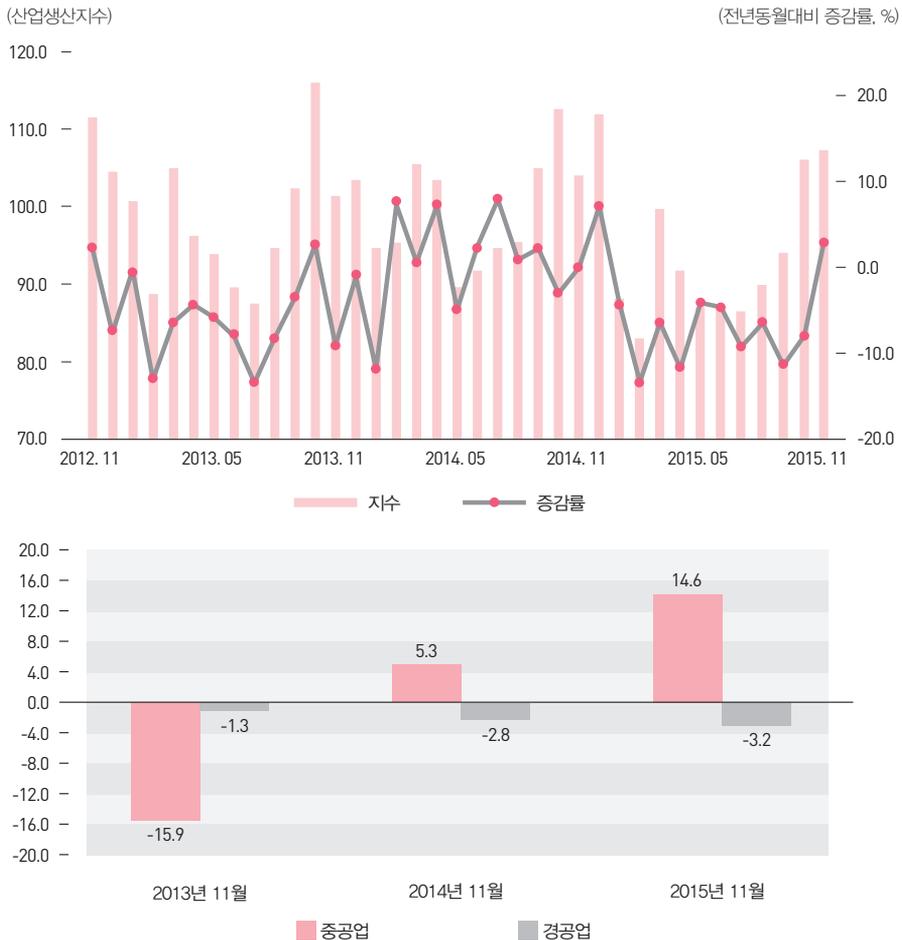
수출입

- 서울의 11월 수출액은 50.2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4.1% 증가, 품목별로는 무선통신기기, 국가별로는 중국이 1순위 차지
- 서울의 11월 수입액은 103.4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8.4% 감소, 품목별로는 원유, 국가별로는 중국이 1순위 차지

생산

서울의 11월 제조업생산지수는 107.5(2010=100)로 전년 동월 대비 3.5% 증가

- 서울의 제조업생산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5% 증가하여 2015년 들어서 첫 플러스 성장
- 중공업 부문은 전년 동월 대비 14.6%로 크게 증가했으나, 경공업은 -3.2%로 감소
- 부문별로 전년 동월 대비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33.6%), 섬유제품(23.2%), 의료정밀광학(19.9%)등은 증가한 반면 가죽 및 신발(-35.1%), 금속가공(-27.9%) 등은 감소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201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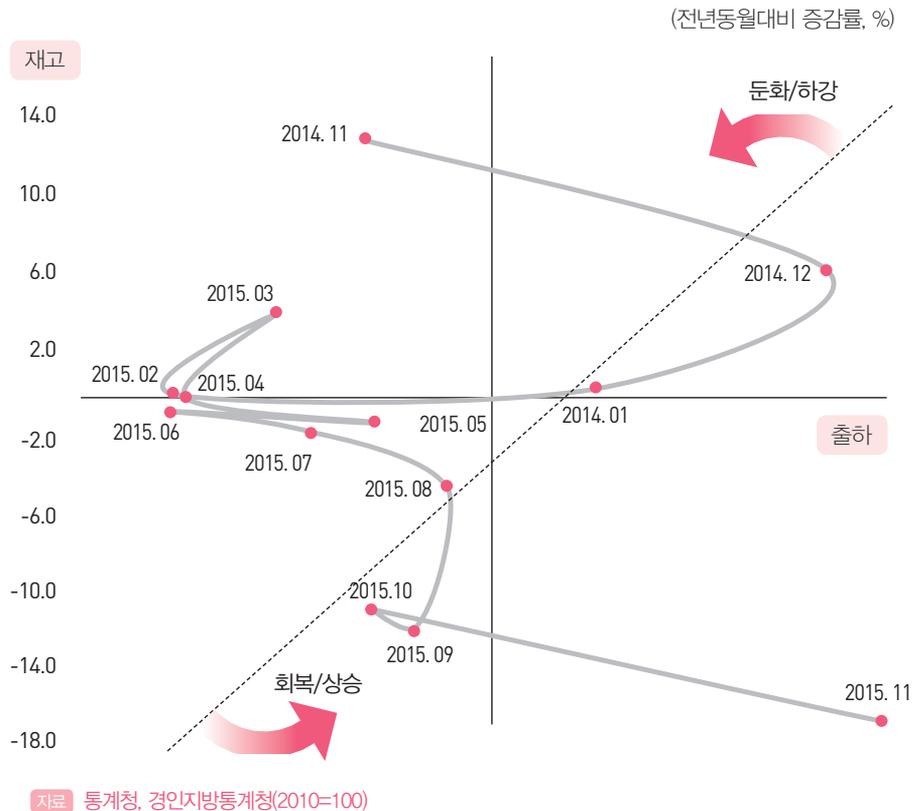
〈그림〉 산업생산 추이 및 증감률

경제동향 | 생산

출하·재고 순환

서울의 11월 제조업 출하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7.9% 증가, 재고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6.7% 감소하여 회복/상승 국면을 시사

- 서울의 11월 출하지수는 109.7(2010=100.0)로 전년 동월 대비 7.9% 증가
- 서울의 11월 재고지수는 111.2(2010=100.0)로 전년 동월 대비 16.7%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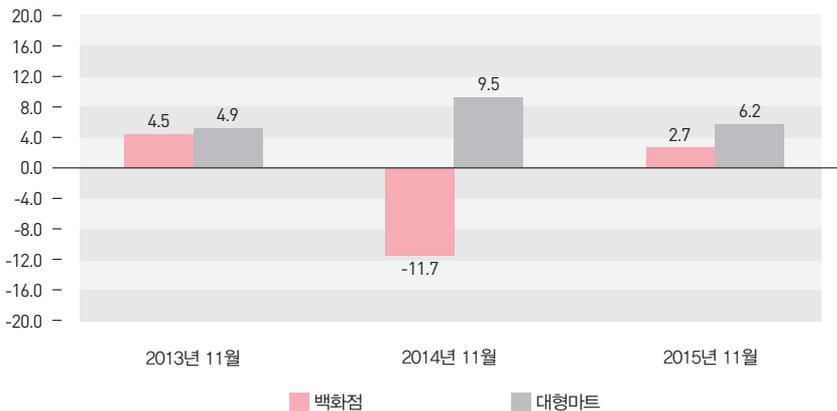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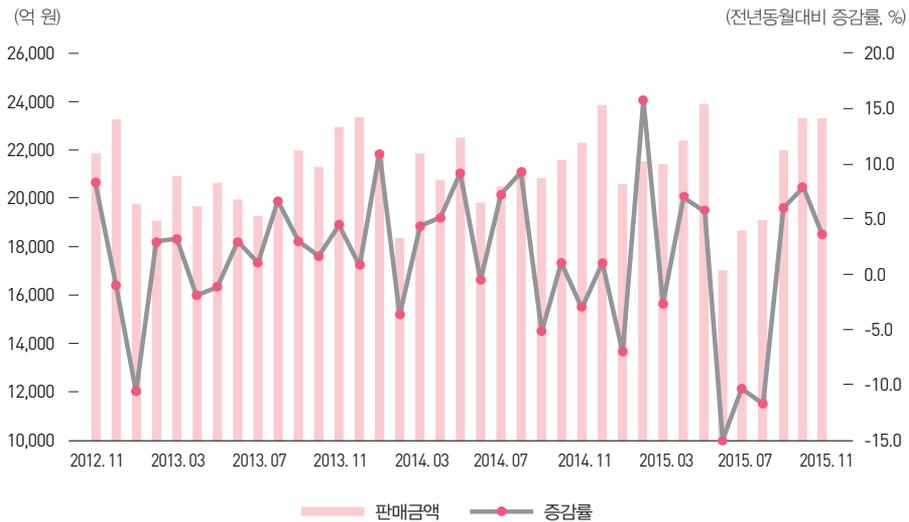


〈그림〉 서울의 출하·재고 증감률 추이

소비

서울의 11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년 동월 대비 4.3% 증가

- 서울의 11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조 3,401억 원으로 전국(6조 9,133억 원)의 33.8%이며 전년 동월 대비 4.3% 증가
- 11월 백화점 판매액은 1조 2,301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 증가하였고 대형마트 판매액은 1조 1,1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2% 증가하여 전반적 소비 증가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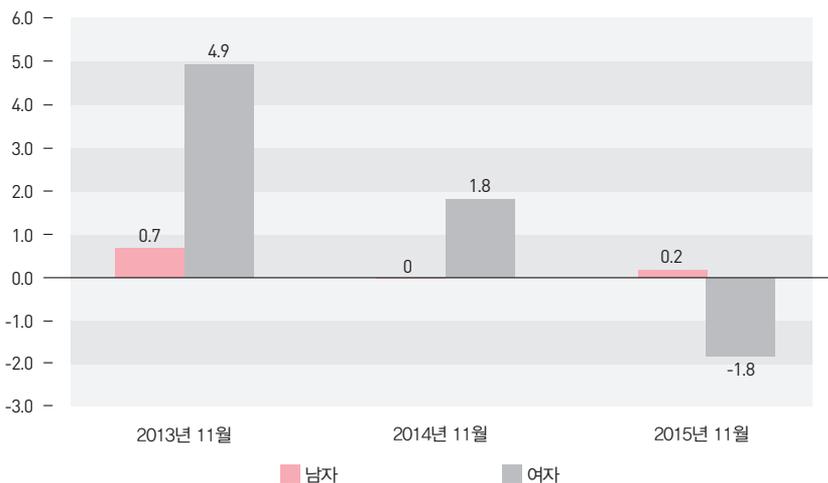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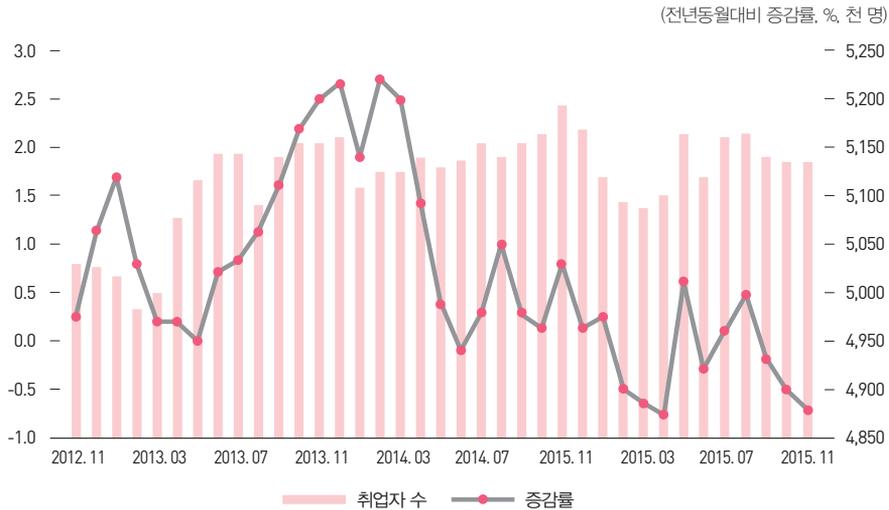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및 증감률

경제동향 | 고용

취업자

서울의 11월 취업자 수는 516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7% 감소

- 서울의 11월 취업자는 516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 6천 명(-0.7%) 감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87만 6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천 명(0.2%) 증가, 여자는 228만 4천 명으로 4만 2천 명(-1.8%)이 감소
- 산업별로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1만 8천 명(0.9%),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이 1만 7천 명(2.1%), 제조업이 1만 명(2.1%) 증가한 반면 도소매·숙박음식업이 6만 2천 명(-4.2%), 건설업이 2만 6천 명(-7.5%)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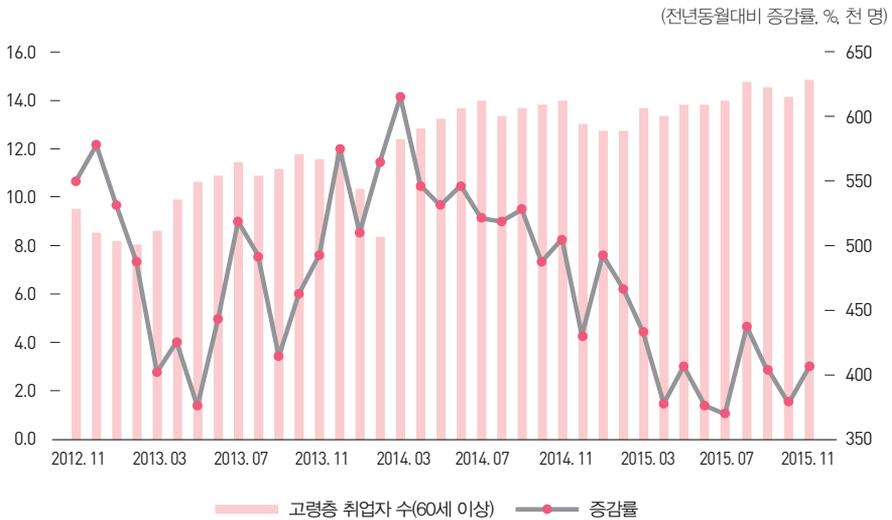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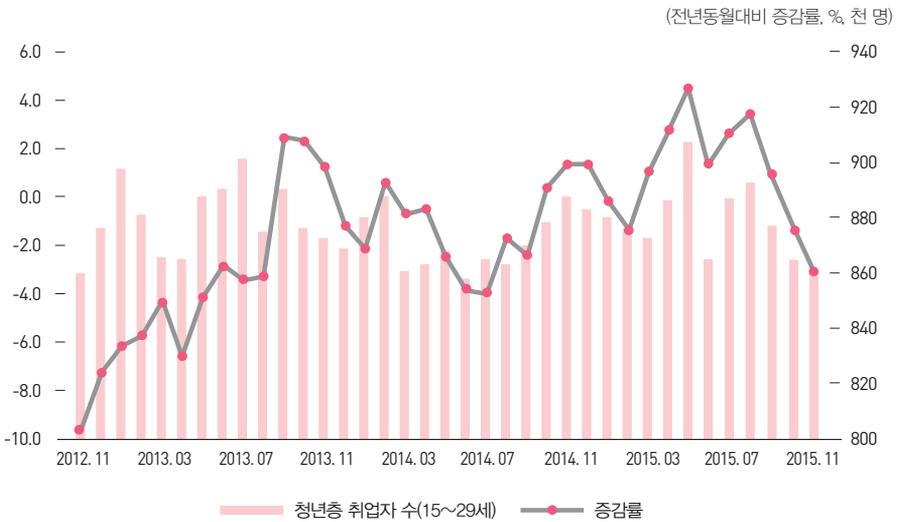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월별 취업자 추이 및 증감률

서울의 11월 청년층(15세~29세) 취업자수는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반면,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수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

- 서울의 11월 청년층(15세~29세) 취업자 수는 86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 감소
- 서울의 11월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는 63만 5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 증가하였으나 2014년도에 비해서는 증가세 둔화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월별 청년층 및 고령층 취업자 추이

경제동향 |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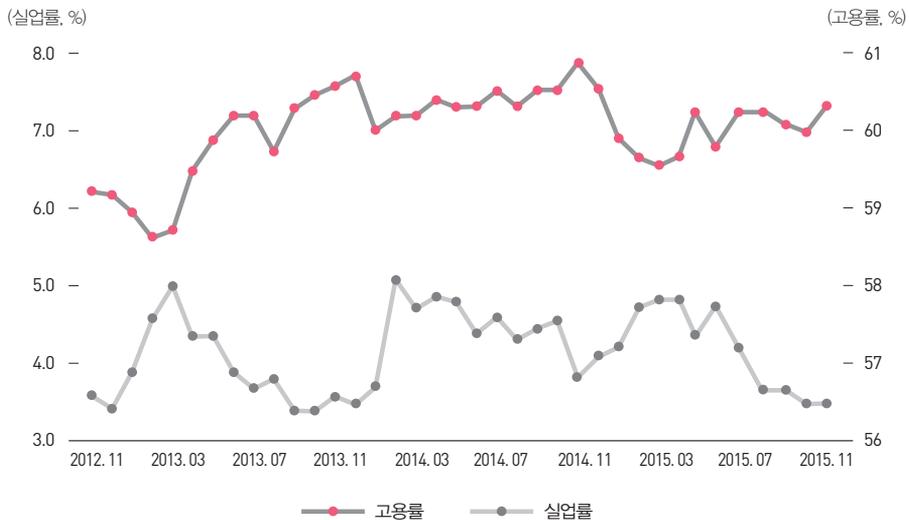
고용률 및 실업률

서울의 11월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 전국 보다 낮은 수준

- 서울의 11월 고용률은 60.3%으로 전년 동월 대비 0.6%p 감소하였고 전국(60.8%) 보다 낮은 수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70.2%로 전년 동월 대비 보합, 여자는 51.2%로 전년 동월 대비 1.1%p 하락

서울의 11월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소폭 감소했으며, 전국 대비 높은 수준

- 서울의 11월 실업자는 19만 2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3천 명(-6.4%) 감소
- 실업률은 3.6%로 전년 동월 대비 0.2%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자는 3.8%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여자는 3.4%로 전년 동월 대비 0.1%p 각각 하락
- 2015년 11월 서울시 실업률은 전국(3.1%)에 비하여 0.5%p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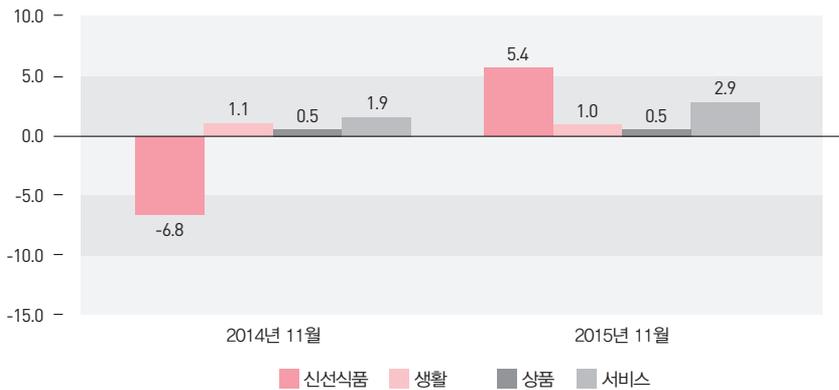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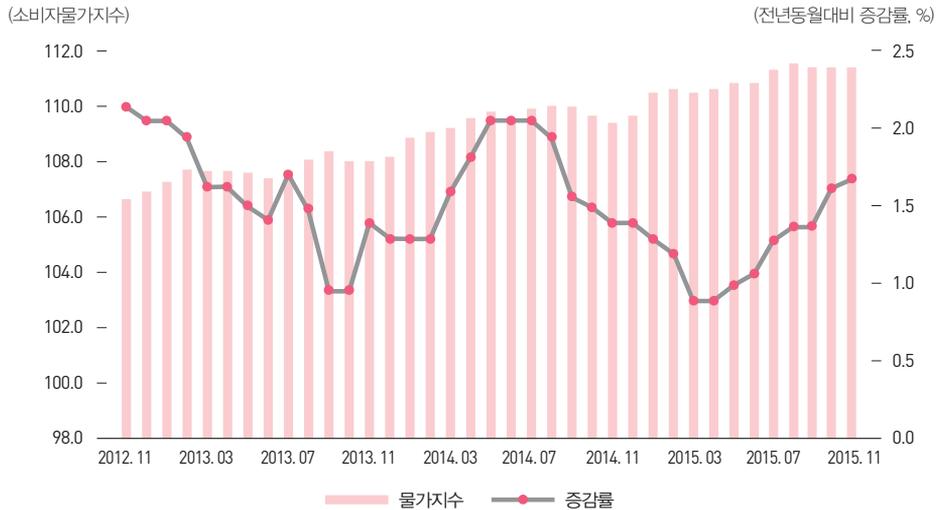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 실업률, 고용률 추이

물가

서울의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7% 상승에 그쳐 저물가 기조 지속

- 11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11.4(2010년=100.0)로 전년 동월 대비 1.7% 상승
- 전년 동월 대비 주요 등락 부문을 보면, 신선식품물가지수(5.4%), 서비스물가지수(2.9%), 생활물가지수(1.0%), 상품물가지수(0.5%) 모두 상승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2010=100)

〈그림〉 서울의 소비자물가 추이 및 동향

경제동향 | 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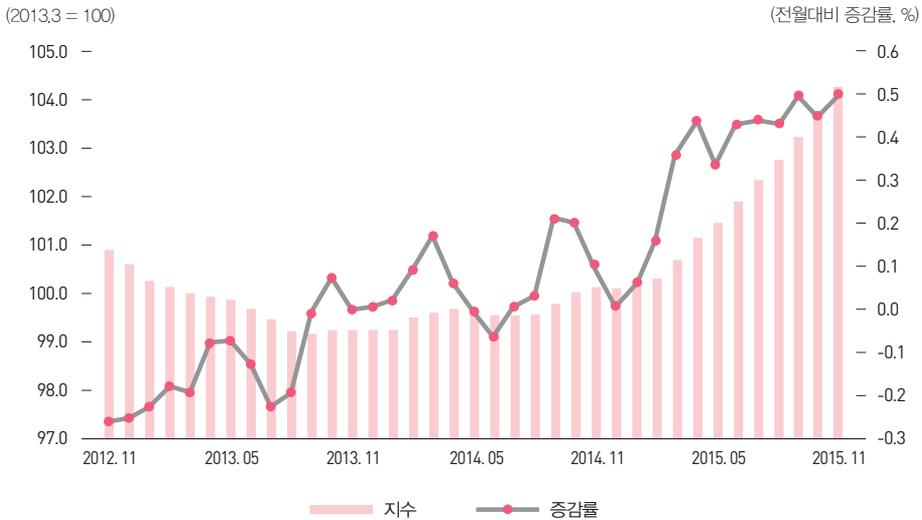
주택매매가격

서울의 11월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상승

- 서울의 11월 주택매매가격지수는 104.2로 전월 대비 0.50% 상승. 한강이남지역(0.52%)은 재건축 이주 수요와 매물부족에 따른 매도호가 상승으로 상승세를 지속. 한강이북지역(0.48%)은 거주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지속
 - 주요 상승지역 : 노원구(0.76%), 성북구(0.74%), 동대문구(0.74%), 영등포구(0.74%)

전국의 11월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상승

- 전국의 11월 주택매매가격지수는 107.0로 전월 대비 0.43% 상승.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 전환 수요와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에 따른 매물부족으로 상승세가 확대됨. 수도권(0.44%), 5개 광역시(0.50%), 기타지방(0.30%) 모두 전월 대비 상승폭이 확대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그림〉 서울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와 증감률 추이

서울의 11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상승, 거래건수는 전월 대비 감소

- 아파트 평당 평균 매매가격*(1,758만 원)은 전월 대비 0.2% 상승, 거래건수(9,923건)는 14.2% 감소
- 평당 매매가격의 주요 상승지역은 양천구(1.70%), 서대문구(1.69%)인 반면, 송파구(-1.73%)에서는 하락.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는 노원구(972건), 송파구(709건), 강서구(625건) 순임

자료 부동산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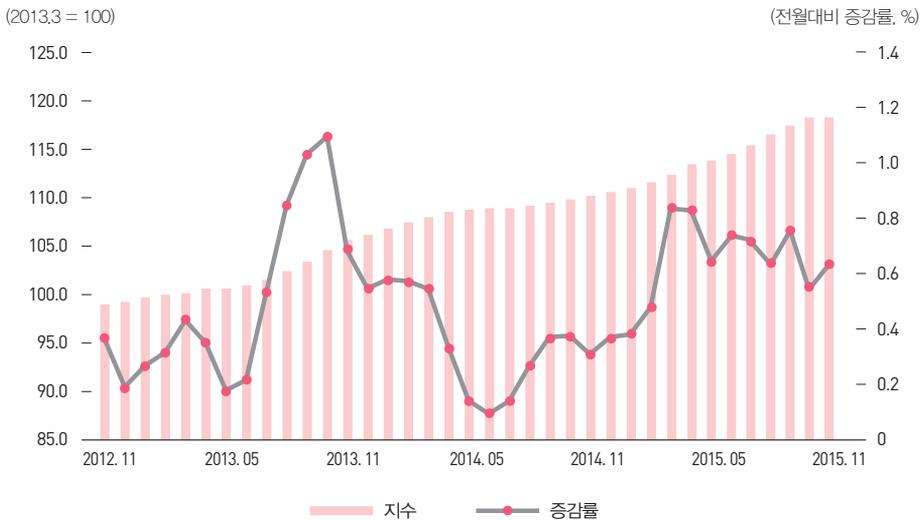
주택전세가격

서울의 11월 주택전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상승

- 서울의 11월 주택전세가격지수는 118.7로 전월 대비 0.66% 상승. 한강이남지역(0.68%)에서는 영등포구와 양천구를 중심으로 전세물량 부족과 저금리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확대됨. 한강이북지역(0.63%)은 중소형 아파트가 많은 노원구, 동대문구를 중심으로 상승
- 주요 상승지역: 영등포구(1.24%), 양천구(1.11%), 노원구(0.94), 동대문구(0.91%)

전국의 11월 주택전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상승

- 전국의 11월 주택전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50% 상승한 114.5를 기록. 전세의 월세전환 급증에 따른 전세물량 부족이 계속되면서 상승세가 지속됨. 수도권(0.61%), 5개 광역시(0.38%), 기타 지방(0.32%) 모두 전월 대비 상승폭이 확대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그림) 서울 주택전세가격 종합지수와 증감률 추이

서울의 11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상승, 거래건수는 전월 대비 감소

- 아파트 평당 평균 전세가격*(1,226만 원)은 전월 대비 1.1% 증가, 전세거래건수(8,331건)는 12.6% 감소
- 아파트 전세가격의 상승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양천구(3.0%) 지역의 아파트 전세가격이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 전세거래건수는 강남구(804건), 노원구(802건), 송파구(622건) 순임

자료 부동산114

경제동향 | 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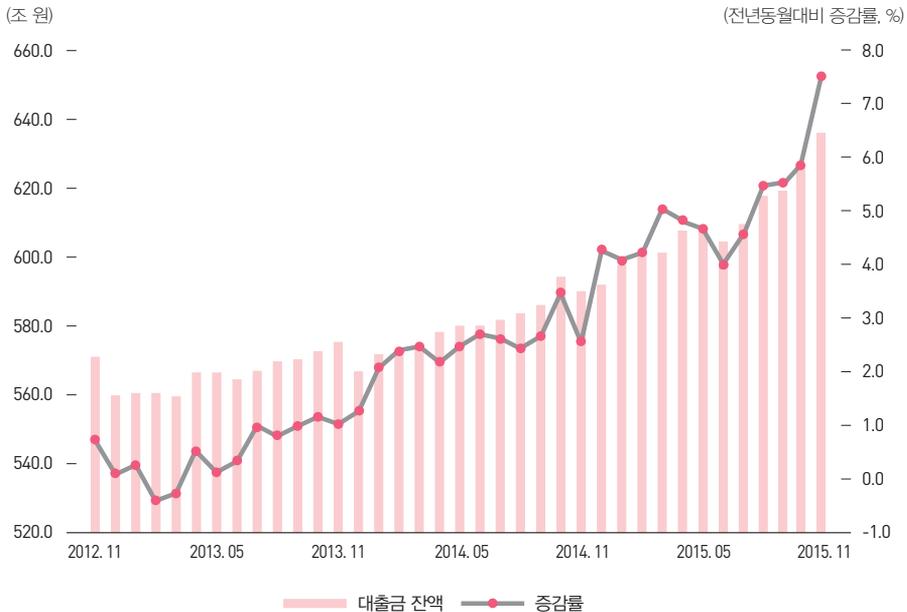
가계대출

11월 기준 서울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 대비 증가

- 전체 대출금 잔액(634조 5,862억 원)은 전월 대비 0.9%, 전년 동월 대비 7.5% 증가
- 그 중 예금은행(527조 9,683억 원)과 비예금은행(106조 6,179억 원)은 전월 대비 각각 0.8%, 1.6% 증가하였고, 전년 동월 대비 각각 7.6%, 7.2% 증가

11월 기준 전국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 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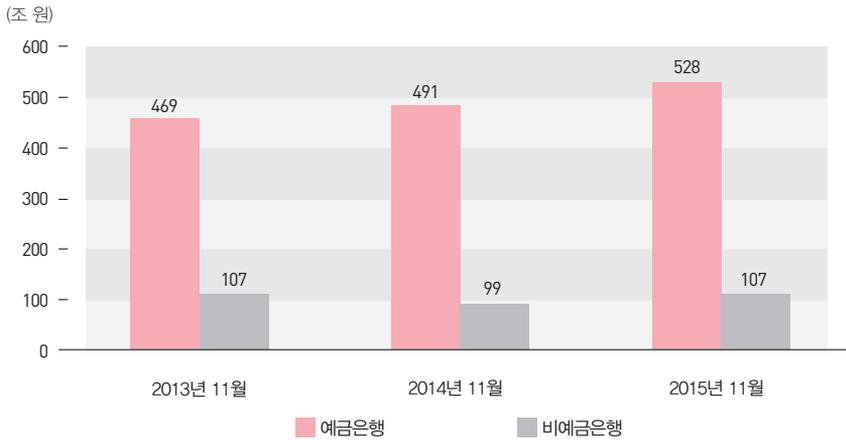
- 전체 대출금 잔액(1,751조 9,238억 원)은 전월 대비 0.9%, 전년 동월 대비 7.9% 증가
- 그 중 예금은행(1,344조 1,681억 원)과 비예금은행(407조 7,557억 원)은 전월 대비 각각 0.8%, 1.2% 증가하였고, 전년 동월 대비 각각 8.0%, 7.6% 증가



주 말잔 금액, 대출금은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의 총합

자료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과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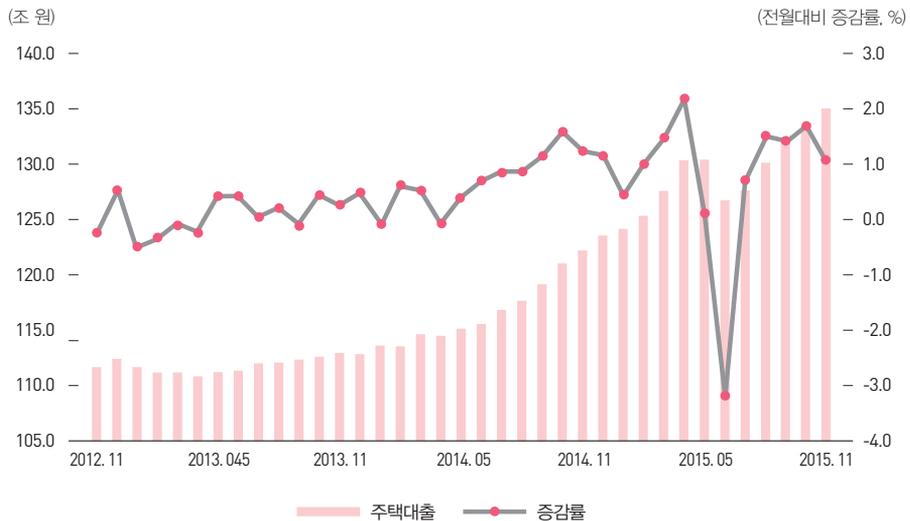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예금은행과 비예금은행의 대출금 잔액

11월 중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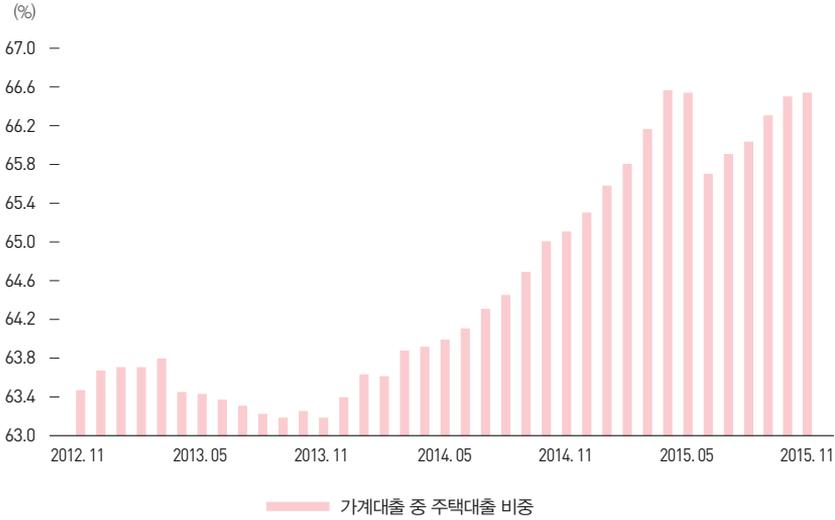
- 은행 가계대출(203조 491억 원)은 전월(201조 1,293억 원) 대비 1.0% 증가
- 그 중 주택대출(135조 430억 원)은 전월(133조 6,987억 원) 대비 1.0% 증가하였고, 가계대출 중 주택대출 비중은 66.5% 차지



주 말잔 금액, 주택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관련 집단대출 중 주택담보 이외의 대출의 총합

자료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은행 주택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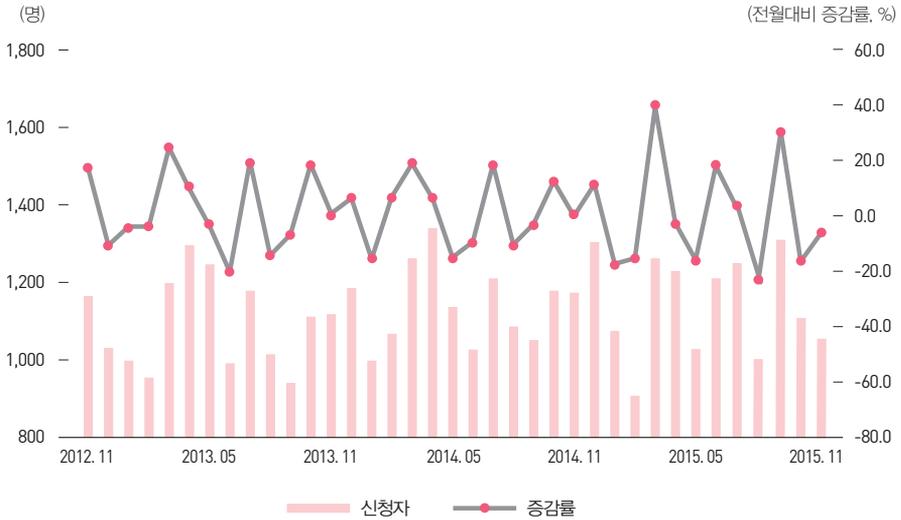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 중 주택대출의 비중 추이

11월 중 개인파산 신청자는 전월 대비 감소

- 서울의 11월 개인파산 신청자(1,067명)는 전월(1,126명) 대비 5.2%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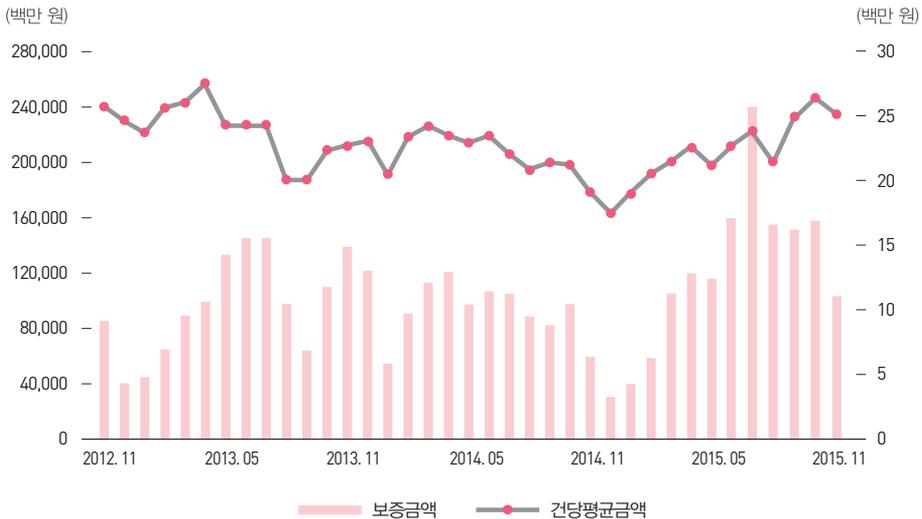
자료 대법원

〈그림〉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 중 주택대출의 비중 추이

신용보증

서울의 11월 보증금액, 보증건수, 건당 평균지원금액 모두 전월 대비 감소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공급은 11월 중 1,027억 원 / 4,073건
- 보증금액과 보증건수는 각각 전월 대비 34.6%, 31.5% 감소, 전년 동월 대비 각각 67.0%, 26.2% 증가
- 건당 평균지원금액(2,520만 원)은 전월 대비 4.5% 감소, 전년 동월 대비 31.9% 증가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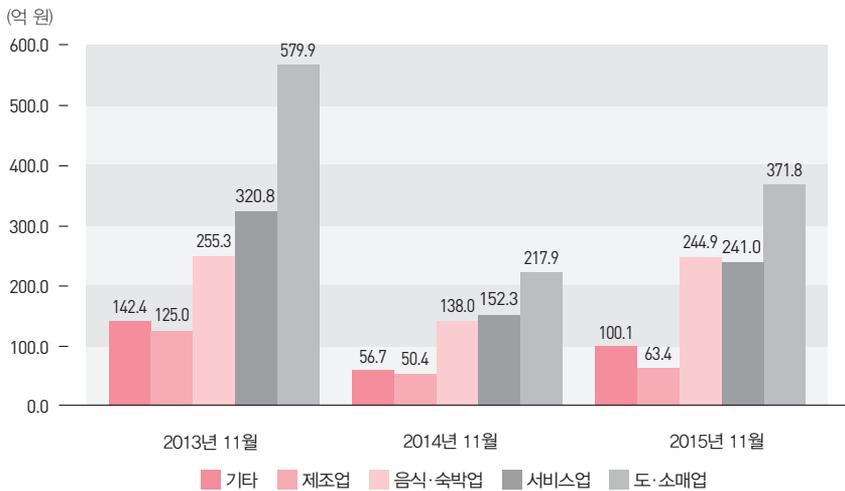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과 건당 평균지원금액 추이

신용보증공급이 전 업종에서 전월 대비 감소한 반면 전년 동월 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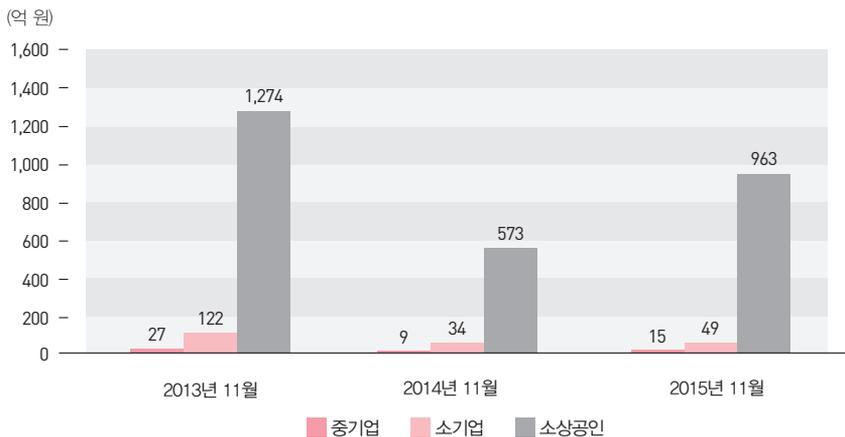
- 신용보증공급 비중은 금액 기준 도·소매업(36.2%), 음식·숙박업(23.8%), 서비스업(23.5%), 건수 기준 도·소매업(34.5%), 서비스업(27.4%), 음식·숙박업(22.5%) 순임.
- 도·소매업의 보증지원 금액은 전월 대비 34.2% 감소한 371.8억 원, 전년 동월 대비 70.6% 증가, 보증지원건수는 1,404건으로 전월 대비 37.1% 감소, 전년 동월 대비 3.6% 증가
- 음식·숙박업(244.9억 원), 서비스업(241.0억 원), 제조업(100.1억 원) 보증지원이 전년 동월 대비 각각 77.4%, 58.3%, 37.7% 증가, 전월 대비 각각 33.5%, 37.8%, 37.9% 감소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보증지원이 전월 대비 감소한 반면 전년 동월 대비 증가

-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68.1% 증가, 전월 대비 34.1% 감소한 964억 원으로 전체 보증금액의 93.7%를 차지. 소상공인 보증지원건수는 전체의 97.4%인 3,967건
- 소기업에 대한 보증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45.8% 증가, 전월 대비 33.5% 감소한 49억 원으로 전체 보증금액의 4.8%를 차지. 소기업 보증지원건수는 전체의 2.3%인 93건
- 중기업에 대한 보증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76.0% 증가, 전월 대비 56.8% 감소한 15억 원으로 이는 전체 보증금액의 1.5%를 차지. 중기업 보증지원건수는 전체의 0.3%인 13건



〈그림〉 업종별 공급금액 기준



〈그림〉 기업규모별 공급금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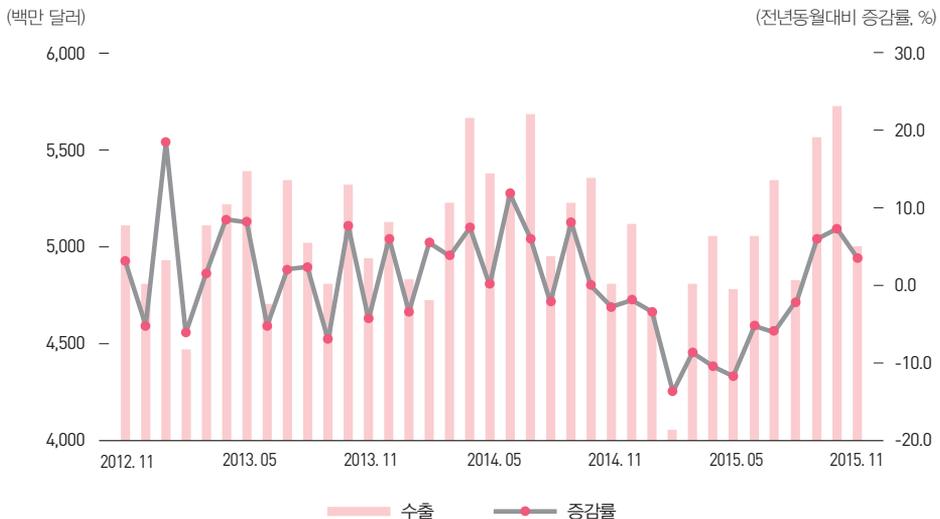
수출입

서울의 1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

- 서울의 수출은 50.2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4.1% 증가하였고, 수입은 103.4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8.4% 감소
- 전국의 수출은 443.2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4.9% 감소하였고, 수입은 340.6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17.6%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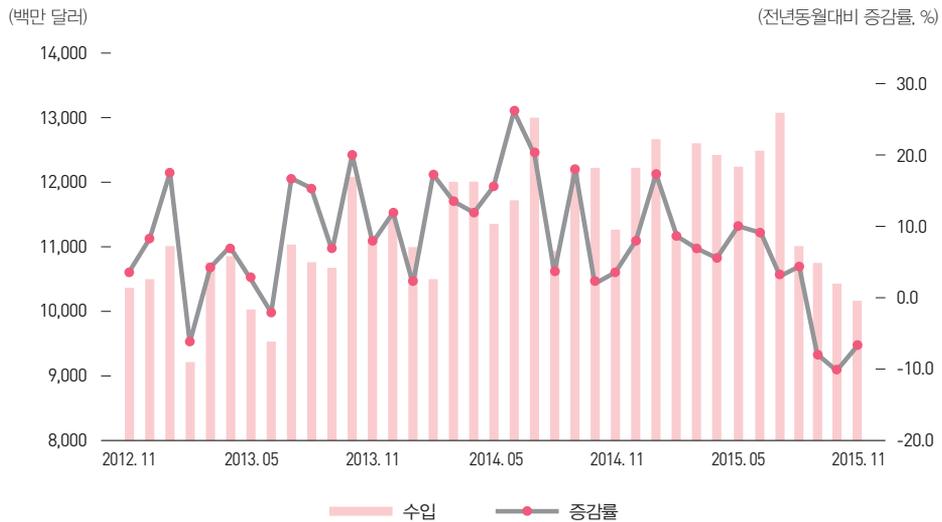
서울의 11월 수출 1순위는 무선통신기기, 수입 1순위는 원유

- 서울의 품목별 수출은 무선통신기기(920백만 달러)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자동차부품, 반도체, 합성수지, 편직물 순임. 무선통신기기 수출대상국은 주로 중국(281백만 달러), 미국(266백만달러)인 것으로 나타남
- 서울의 품목별 수입은 원유(966백만 달러)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석유제품, 자동차 순임. 원유 수입은 전월 대비 126.2% 증가하였으며, 주로 쿠웨이트(347백만 달러), 이라크(206백만 달러)로부터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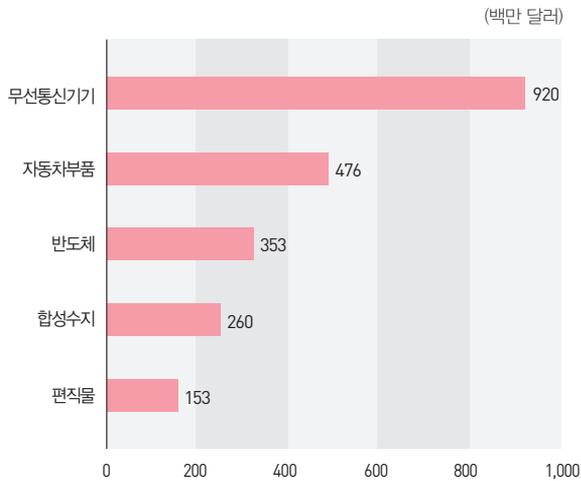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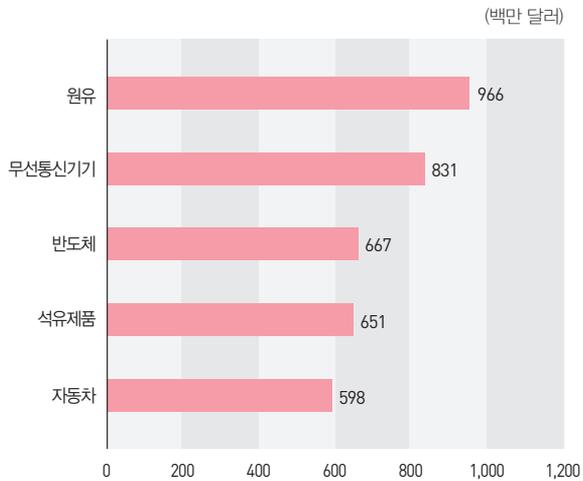
〈그림〉 서울시 수출액과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시 수입액과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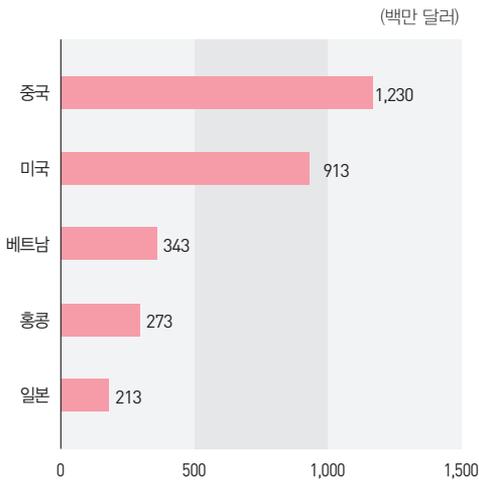
〈그림〉 11월 서울시 품목별 수출액



〈그림〉 11월 서울시 품목별 수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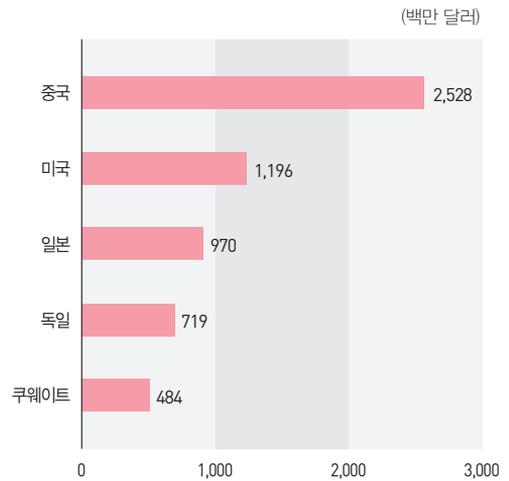
서울의 11월 수출·입 1순위 상대국은 중국

- 서울의 국가별 수출은 중국이 전년 동월 대비 3.4% 감소한 1,230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미국, 베트남, 홍콩, 일본 순임
- 대미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50.3% 증가한 913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가장 큰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음
- 서울의 국가별 수입은 중국이 전년 동월 대비 9.2% 감소한 2,528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미국, 일본, 독일, 쿠웨이트 순임
- 쿠웨이트로부터 원유 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387.0% 증가, 높은 증가폭을 기록하며 새롭게 순위권에 진입



자료 무역협회

〈그림〉 11월 서울시 국가별 수출액



〈그림〉 11월 서울시 국가별 수입액

자료출처

자료출처

- 경인지방통계청, 『2015년 11월 서울시 산업활동동향』
- 경인지방통계청, 『2015년 11월 서울시 고용동향』
- 경인지방통계청, 『2015년 11월 서울시 소비자물가동향』
- 국민은행연구소, 『2015년 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 대한민국 법원, 법원통계월보, 『<http://www.scourt.go.kr>』
- 부동산114, 『2015년 11월 서울시 아파트 평당매매가격』
- 부동산114, 『2015년 11월 서울시 아파트 평당전세가격』
- 서울신용보증재단, 『2015년 11월 신용보증동향』
- 서울특별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http://land.seoul.go.kr/land>』
- 통계청, 『2015년 11월 산업활동동향』
- 통계청, 『2015년 11월 고용동향』
- 통계청, 『2015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http://kosis.kr>』
-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네트워크, 『<http://stat.kita.net>』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경제통통

FOCUS

- 서울시,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 85억 달러…
역대 최대 기록
- SNS 활용 전자상거래 피해 급증… 서울시,
엄격한 조치 계획

ZOOM IN

- 서울시, 2015년 지역사회공헌 우수 소상공인 선발
- 서울시, 대부업 금리제한 일몰 대비 대부업체
행정지도 실시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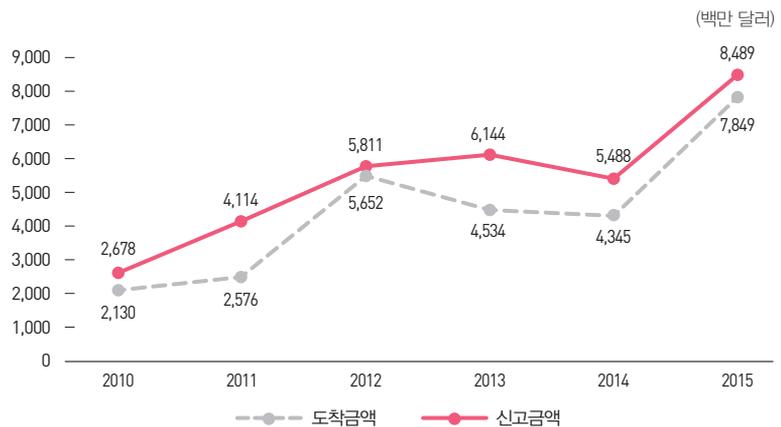
김가영 gykim@seoul.go.kr

FOCUS | 01

서울시,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 85억 달러... 역대 최대 기록

서울시의 2015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실적이 역대 최대치인 85억 달러를 기록했다.

서울시는 작년 신고기준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서울시의 연간 FDI 신고액 중 최고 금액인 84억 8,900만 달러('15년 12월 27일 기준)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14년의 54억 8,800만 달러보다 54.7% 증가한 수치이며, 전국 FDI 신고액(204.3억 달러)의 41.6%에 달하는 규모이다.



〈연도별 서울시 외국인직접투자 금액 추이〉

〈지역별〉로는 미주지역의 투자금액이 79.9% 증가했고, 〈국가별〉로는 국내 기업 인수 등에 따른 중국투자가 2,138%(22배 ↑)나 급증했다. 〈산업별〉로는 M&A관련 금융·보험업 투자(247.3% ↑) 증가로 서비스업 투자가 확대(69.5% ↑)된 반면, 제조업은 감소(38.9% ↓)했다. 〈목적별〉로는 M&A형 투자가 사상 최대 금액을 기록하며 크게 증가했고(173.9% ↑), 공장이나 사업장 설립 등에 관한 그린필드(Greenfield)형 투자는 소폭 상승(3.7% ↑)했다.

서울시는 올해에도 금융·ICT·바이오·아레나 등 서울 경제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산업 분야의 투자확대를 위해 산업별 전담팀을 운영하고, 기존 발굴 기업과 신규 추가 발굴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SNS 활용 전자상거래 피해 급증... 서울시, 엄격한 조치 계획

- 카카오토리를 통해 구매한 의류를 배송받고 당일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청했으나 교환만 가능하고 환불은 안 된다고 거부당했다.
-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가방을 확인하고 카카오톡으로 판매자와 연락하여 계좌입금으로 구매하였으나 배송이 되지 않고 카카오톡으로 문의해도 확인하지 않고 있다. 블로그를 보니 다른 피해자들도 많았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SNS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를 분석한 결과, '15년 발생한 피해건수는 총 492건으로 '13년 71건, '14년 106건에 비해 7배가량(5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 예방을 위해 업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관련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해유형은
계약취소에 따른
반품·환급 거절이 최다,
사기 피해는 감소**

〈피해유형〉은 '계약취소, 반품·환급거절' 등이 316건(64%)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배송지연이 61건(12%), 연락두절·운영중단이 53건(11%)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품목〉을 살펴보면 '의류'가 277건(56%), '신발·가방 등 패션잡화'가 119건(24%)으로 패션 관련 상품이 대부분이었다. 〈피해연령〉은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한 20~30대 소비자에게 집중(88%, 437건)됐고 40대 이용자의 피해도 증가('13년 5건 → '15년 36건)하는 추세다.

서울시는 SNS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전자상거래가 늘고 있으나 판매자들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곳이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각별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법 집행을 엄격하게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고, 구제가 어려운 점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 SNS 활용 판매자가 사업자정보 및 이용약관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SNS 사업자와 협의할 예정이다.

ZOOM IN | 01

서울시, 2015년 지역사회공헌 우수 소상공인 선발

지역사회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해 온 소상공인 13명이 서울시로부터 시장표창과 '지역사회공헌 인증점포' 현판을 받았다.

이들은 대부분 소규모 점포(기업)를 운영하는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소외계층에 대한 자원봉사와 기부활동으로 따뜻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공헌해 온 점을 인정받아 이날 표창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대기업 자본이 골목상권까지 진출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누고 베푸는 소상공인들의 미담사례를 발굴·전파하여 소상공인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지역사회공헌 우수 소상공인 선발 공모'를 실시했다.

공모를 통해 추천받은 25명을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발심사위원회가 공헌활동 내용과 활동의 적극성, 수혜범위,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종로구 이병환씨 등 총 13명을 최종 선발하였다.

이날 표창을 받게 된 이병환씨는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광장인삼'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88년 광장시장 청우회를 직접 설립하여 소년 소녀 가장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꾸준한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송파구에서 제이엔씨인베스컨을 운영하는 김현철씨는 정기적으로 관내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말벗, 간식제공 등 봉사활동을 해 왔고, 결연 어르신에 매월 물품을 지원했다.

서울시는 이날 시상식에서 13명의 수상자들에게 서울시장 표창장과 함께 '지역사회공헌 인증점포' 현판을 수여하여 해당 점포를 방문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 속에 실천하는 봉사가 홍보·전파될 수 있도록 했다.

성명	점포명	성명	점포명
이병환	광장인삼(종로구)	이인라	단우정(은평구)
김현철	제이엔씨인베스컨(송파구)	심용진	안경나라 신길점(영등포구)
허권	금강보청기 금천센터(금천구)	이현구	네오피스 코리아(관악구)
조창호	서울산업정보교육원(금천구)	박찬조	알자나(중구)
이종헌	오리엔스(노원구)	이상익	웰빙(성북구)
남정애	노바의료기(동작구)	강나을	닥터오바이오(송파구)
박정열	칠일기획(영등포구)		

서울시, 대부업 금리제한 일몰 대비 대부업체 행정지도 실시

서울시가 대부업법 국회 계류로 최고금리 규제를 적용하지 못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대부업체에 금리 인상을 억제할 것을 당부하고 자치구에 행정지도 및 금리운용 실태점검 등 대부업체 관리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에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 한도가 34.9%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 한도는 동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15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므로 입법 공백으로 인해 대부시장에서 서민경제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행정자치부의 요청에 따라 시내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실효 전 대부업법상 최고금리인 34.9%를 준수하도록 우선 전화, 팩스, 문자로 안내하고, 이후 각 자치구에 직접방문, 공문발송 등을 통해 관내 대부업체에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또한, 고금리로 인한 서민층의 피해를 막기 위해 대부업체가 실효 전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지 않도록 지도하고, 관련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이자수익 극대화를 위해 공격적 영업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 영세 대부업자를 중심으로 금리운용실태를 자치구와 합동 점검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체가 실효 전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여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경우,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이나 민생경제과(☎2133-5403) 또는 각 자치구에 신고하고, 서울시는 신고된 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나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펼칠 예정이다.

향후 서울시는 각 자치구의 행정지도 실시현황을 파악하고, 대부업체의 금리운용실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고금리업체 적발 시에는 시정을 요청하는 한편, 해당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